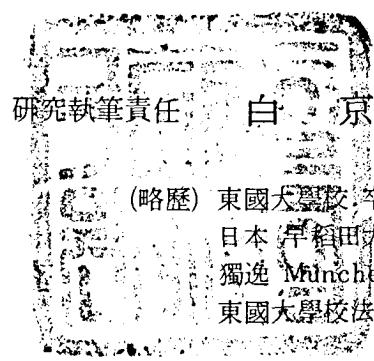


3882
340.925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研究結果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東西獨基本條約成立의 對內外的狀況



研究執筆責任 白 京 男 (東國大教授)

(略歷) 東國大學校 卒業(1965)
日本 早稻田大學 大學院(1972)
獨逸 München大學 政治學博士(1977)
東國大學校法政大學 教授(1978-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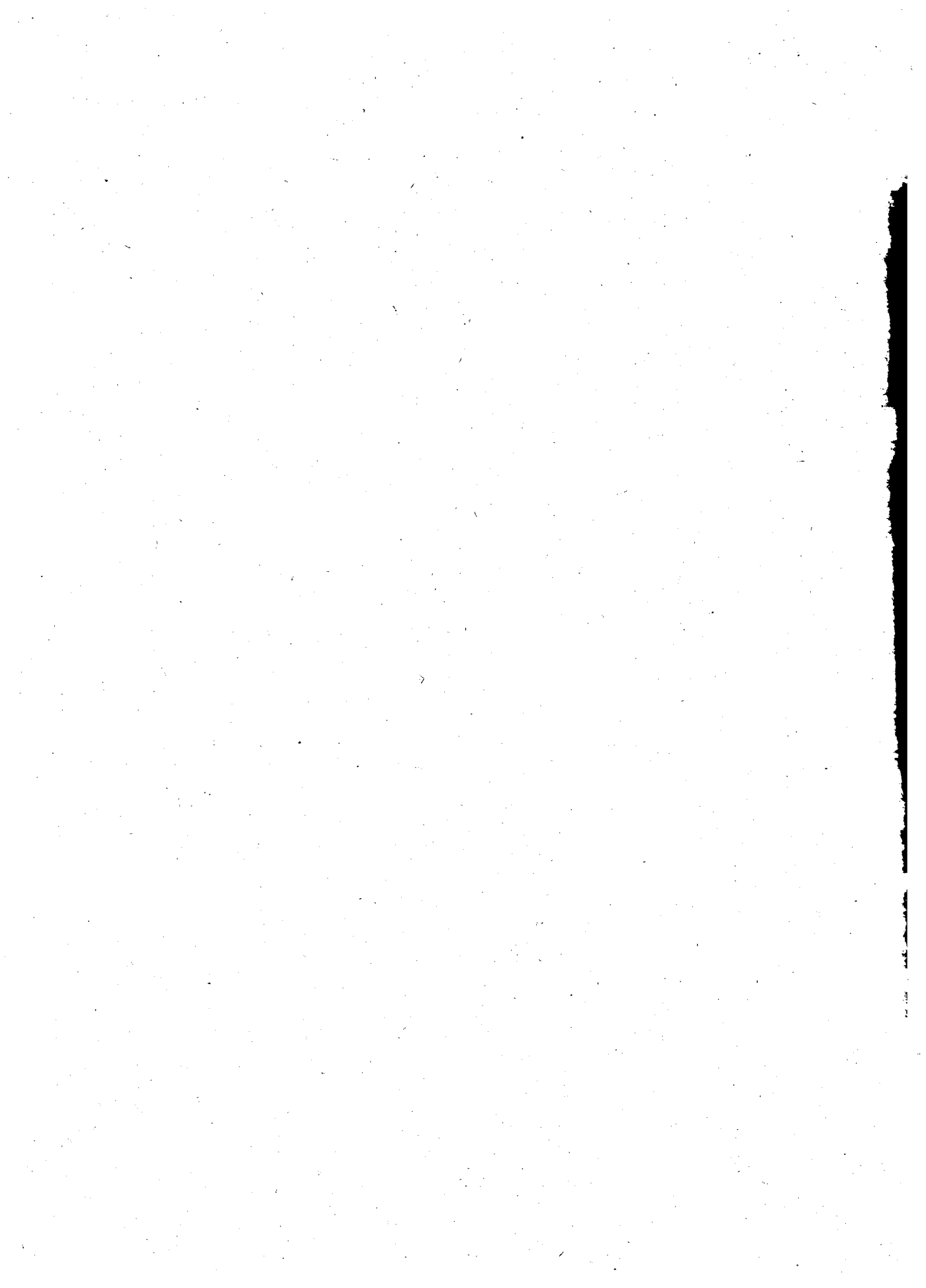
刊行責任 朴 英 鎬 (調查研究室補佐官)

홍사욱관계
홍사욱기분조약
독일독일
홍양의교
소련독립전쟁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目 次

I. 序 論	1
1. 獨逸의 分斷과 再統一問題	1
2. 研究範圍와 對象	3
II. 基本條約成立과 國際環境의 成熟	5
1. 美國의 데탕트政策	5
2. 소련의 平和共存政策	7
(1) 소련의 平和共存政策과 對西獨政策의 變化	7
(2) 소련의 對西獨宥和政策過程에서의 울브리히트退場과 호빅커 登場	9
III. 西獨의 內的 狀況의 變化	12
1. 冷戰과 아데나워首相의 環境認識	12
2. 經濟復興과 西獨의 繁榮	18
3. SPD와 西獨의 將來	21
(1) 初期 SPD의 外交路線	21
(2) SPD의 現實認識과 獨逸政策轉換	23
(3) 브란트首相의 東方外交	29
(4) SPD와 西獨의 民主主義能力	36
(5) 基本條約의 成立	43



I . 序 論

1. 獨逸의 分斷과 再統一問題

1945年 「포츠담협정」에 근거한 戰勝國의 독일점령통치는 東歐에서 소련의 점령정책으로 점령 列強의 意見對立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東西間의 冷戰이 날이 갈수록 深化되자 西方側은 美英仏 占領地區에 독일경제위원회 설치, 독일경제의 유럽경제체제에의 포함결의 그리고 1948년 6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다른 한편 소련은 그들의 점령지역에서 政治·經濟·社會構造의 변경조치와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실시하였다. 이로서 독일은 별개의 점령지구로 분할되어 사실상 분단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1948년에 聯合國管理理事會의 活動은 중지되고 같은 해 6월 24일 소련은 베르린을 봉쇄하여 四國管理의 종료를 宣言하였다. 마침내 1949년에 독일에는 두개의 국가, 즉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과 「獨逸民主共和國」(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이 수립되었다.

이로서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獨逸統一이래 유럽정치를 左右하여 온 政治的 힘의 單位로서 獨逸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獨逸의 분단은 獨逸人 스스로의 意思라기 보다는 東西冷戰의 產物이었다.

西獨政府는 소련점령지구의 政權은 住民의 自由意思없이 樹立되었기 때문에 不法이라 主張하고 國民에 의하여 자유롭게 선출된 西獨政府를 獨逸에서 「唯一한 合法的 獨逸政府」라는 「單獨代表權」을 要求하였다.

이에 따라 東獨을 承認하는 國家와 국교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原則」¹⁾은 아데나워時代 西獨의 外交原則이 되었다.

아데나워首相은 西歐世界와의 關係에 우선을 두고 東과의 外交를 거절하였다. 그의 外交는 冷戰아래서 더욱 效果的이었고, 冷戰아래서 SPD의 外交政策은 罪惡視되었다.

그러나 東西의 緊張緩和가 진전되는 60年代 美國과 소련사이에서 대화가 進行되는 새로운 政治構造속에서 東西獨의 冷戰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緊張緩和가 진전됨에 따라 아데나워의 再統一政策의 失敗가 드러나고 그 사실이 널리 認識되면 되어 질수록 自主的인 外交政策의 要求가 西獨에 높아졌다. 또한 西獨이 戰後에 이루어 놓은 經濟力은 獨逸問題에서 政治的 交涉能力을 불가피하게 增大하였다. 西獨의 政治的 地位를 經濟的 地位까지 높여야 했다. 한편 東獨은 유럽대륙에 있어서 하나의 大工業國으로 되어 그 生活水準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環境은 再統一이 現實의 政治情勢로 보아 不可能한 現狀認識가운데서 領土의 現狀維持를 明示的으로 承認함으로써 그리고 東獨의 存在를 認定함으로써 政治的 關係를 正常化하는 것을 西獨으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여기서 民族問題에 대하여 大國에 依存하지 않고 스스로 對話할 수 있는 自主外交의 先行條件은 外交行動樣式에 있어서 冷戰型인 基督教民主同盟과 基督教社會同盟(Christlich-Demokratische Union/Christlich Soziale Union : CDU/CSU)의 政府아닌 進取的 關係設定을 시도하는 社會民主黨(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政府이었다.

2. 研究範圍와 對象

1963年 아데나워의 退陣後 西獨은 새로운 緊張緩和의 國際조류에 適応하려 하였다. 西獨이 從來의 對東獨政策을 變更하지 않는한 外交上의 孤立化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歐여러나라와의 關係改善에 意慾을 보인 키싱거는 아데나워가 遺産으로 남긴 西獨外交의 基本方針을 基礎로한 党内의 抵抗으로 積極的인 자세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再統一의 幻想을 버리고 장벽과 철조망 건너편의 共產主義와의 關係 正常化를 향한 움직임의 本格化는 1969年 SPD 党首 브란트를 首相으로한 社民·自民聯立政府가 登場하여 소련·東歐諸國과 화해를 하는 「東方外交」를 추진할 때 비로서 시작되었다.

東方外交에서 西獨은 外交政策上 새로운 行動의 自由의 領域을 넓히고 그동안 蓄積된 우수한 經濟力과 그리고 國內政治에서 議會外的 反對勢力을 体制内로 迅速하게 흡수한 体制의 安定基盤위에서 獨逸問題에 主導權을 發揮하여 兩獨關係를 正常化하는 「基本條約」을 成立시켰다. 아데나워首相과는 달리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Ostpolitik)은 戰略的인 洞察力을 가진, 信念에 찬, 숙련된 그리고 잘 計劃된 外交樣式의 所産으로 이 東方政策의 ダイナミック한 本質은 西獨으로 하여금 새로운 自信感을 발산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西獨은 채워지지 않은 國家的 所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所望에 따라 國力을 使用할 때 유럽의 安全에 미치는 影響을 스스로 洞察하면서 民族의 將來에 대하여 自主的으로 對話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는 데 成功하였다.

本 論文의 研究對象은 東西獨 基本條約 成立을 가능케한 決定要因의 考察이다. 東西獨 基本條約 成立은 國際權力體系의 變化와 이에 對應 할줄 아는 獨逸人의 政治的 能力의 成熟이라는 假說에서 出發하여 分析의 焦點은 獨逸 統一問題를 둘러싼 內·外的 環境的 要因과 그리고 이의 刺戟에 反應하면서 主體的 與件을 形成하여 가는 過程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緊張緩和라는 國際的 狀況은 當事者의 狀況의 條件²⁾으로서 影響을 미친다. 西獨은 環境의 刺戟에 민감하게 反應하면서 치밀하게 組織된 外交行動으로 自國에 유리하게 變化된 國際環境을 主體的으로 再構成하면서 유럽 國際政治의 全體的인 座標를 設定해가는 主役이 된다.

본래 獨逸의 分斷이 美國과 소련의 冷戰의 所산이었으므로 國際環境의 變化는 美國과 소련의 德탕트政策을 照明한다. 그리고 國際體系의 多元化는 美國과 소련의 統制力을 弱화시켜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外交에 있어서 自主路線을 指向할 수 있는 機會였다.

여기서 獨逸도 예외일 수는 없어 休眠狀態에 있었던 西獨의 外交政策에 刺戟을 준 것이다.

여기서 國際環境의 條件인 東獨의 外交와 國內發展은 소련의 外交와 一致함으로 소련의 條件에 包含시킨다. 實際 소련은 이미 그들의 유럽 安保構想에 따라 브란트의 東方外交를 받아 드리는 데 있어서 冷戰時代, 西獨에 대한 保墨役割을 擔當하여 오던 울브리히트의 外交路線은 소련의 對西獨 宥和政策과 正面으로 衝突되었기 때문에 호네커를 登場시켜야 했다.

Ⅱ. 基本條約成立과 國際環境의 成熟

1. 美國의 戴탕트政策

戴탕트가 西方의 共通의 政策으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1962年 이후의 일이다.³⁾ 冷戰構造속에서 美國과 소련은 過去 유럽國家가 遂行하여오던 大國의 전통적 역할을 遂行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世界強國의 立場에서 규범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軍事的인 對決의 境界線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을 지속하였다. 유럽에서 이 軍事的·이데올로기적 대결의 경계선은 유럽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獨逸이고, 이 獨逸의 분단은 유럽의 分断이었다. 그러므로 西獨은 美國의 對蘇戰略의 「第1線」⁴⁾이었다. 冷戰期에 西獨은 美國에 軍事的·經濟적으로 依存하여야 했고 美國은 마샬計劃에 의한 원조로 西獨의 經濟復興을 돕고 安全保障을 지켰다. 그러므로 外交·政治의 領域에서 西獨의 獨立은 制限의 일 수 밖에 없었다. 美國은 또한 蘇聯에 대항하기 위하여 西獨을 再軍備시켜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美國의 對蘇戰略과 아데나워 首相의 「反共哲學」은 完全히 일치하였다. 그러나 1953年 8月에는 蘇聯이 核實驗에 成功, 美國의 核兵器獨占을 기반으로한 對蘇強硬外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軍事力使用이 核戰爭을 초래하여 체제를 달리하는 兩陣營間의 全面戰爭이 서로의 自滅과 全人類의 破滅을 초래한다는 大國의 共通認識이 緊張緩和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미 1962年 11月의 쿠바미사일위기는 冷戰時代의 위기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 1963年 4월 5일에는 美國과 蘇聯間 「핫트라인」

이 設置되고 1963년 「核兵器의 部分的 實驗中止協定」⁵⁾이 締結되고 1968년에는 美國과 蘇聯間 「核兵器拡散防止條約」⁶⁾이 締結되는등 東西緊張緩和를 위한 交渉政策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드골大統領은 프랑스의 獨立的인 政治的 地位를 다지기 위하여 核兵器를 개발하고 1966년에는 NATO 軍事機構에서 脫退하여 美國과 蘇聯으로부터 獨立된 프랑스 獨自的 外交政策을 구상하였다. 한편 美國과 蘇聯의 競争狀況속에서 어떤 進영과도 軍事同盟을 締結하지 않은 非同盟政策과 自主路線을 표방하는 第3世界의 國家들이 國際政治에 登場하여 國際體系는 더욱 複雜化·多元化의 方向으로 進전되었다.

1960年代 美國은 베트남 戰爭의 늪에 깊숙히 빠져 있었다. 베트남 戰爭에 美國의 國力이 集中되어 있을 때 유럽戰線의 緊張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西歐의 防衛體制에 中心的인 責任을 가지고 있는 美國의 존슨大統領은 1966년 10월 環境改善에 의한 「유럽問題解決」의 의사를 明白히 하였다.⁷⁾ 1967年 12월 NATO 閣僚理事會는 東西和解의 促進이 NATO의 과제임을 確認하였다. "유럽에서 現在 緊張의 核이 되는 獨逸問題解決없이 유럽의 窮極的인 安定이나 規定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規定도 東西유럽에서 獨逸의 分断으로 不幸하게 야기된 부자연스런 制限을 없애야 한다. 同盟國은 東西關係의 緊張緩和를 促進하기 위한 現實的인 조치를 취할 努力을 目標로 設定함을 결의한다. 緊張緩和는 最終 目標가 아니라 유럽問題를 규정하고 유럽關係를 改善하는 長期的 과정의 부분이다."⁸⁾

美國의 데탕트政策은 1969년 닉슨大統領이 NATO 본부를 訪問할 때 "對立의 시대는 지났으며 蘇聯과의 交渉의 時代가 초래하였다"⁹⁾라고 宣言하였을 때 그 本軌道에 進입하였다. 軍事的 對立을 포기하고 全

世界的인 平和秩序를 구축하고 軍備競争을 증식시켜 相互協調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獨逸 問題의 前提는 유럽의 緊張緩和에 의한 平和的 方法에 의한 解決이었고 유럽 安定의 前提는 獨逸 問題의 解決이었기 때문에 德탕트의 本場은 유럽이었다.

2. 소련의 平和共存政策

(1) 蘇聯의 平和共存政策과 對西獨政策의 變化

蘇聯의 德탕트政策은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 理論에 근거한다. 레닌理論의 戰略의 하나로서 「冷戰」에서 「協力」으로의 過程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世界革命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暴力主義를 擁護하나 資本主義國家에 둘러싸인 共產主義國家로서 平和共存은 시간을 벌고 숨을 쉴 機會를 얻어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을 강화하는 戰略에 該當한다.¹⁰⁾

1961年 10月 17日부터 31日까지 개최된 蘇聯共產黨 第22次大會에서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는 平和共存政策을 제안하였다. 이는 蘇聯內에서는 스탈린의 恐怖政治의 終焉을 의미하였고 共產圈內에서는 社會主義에로의 길에 있어서 多樣性を 인정한 것이다. 흐루시초프 平和共存政策은 美國과의 關係調整으로부터 出發하였다. 中蘇論争이 이데올로기 鬭争으로부터 政治鬭争으로 될때 強大國과의 核戰爭의 可能性을 앞에 놓고 소련으로서는 現實적으로 平和共存外에 選擇의 餘지가 없었다.

그후 브레즈네프시대 美國과 蘇聯의 核戰力, 中蘇對立 그리고 經濟問題는 對外政策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960年代 蘇聯의 經濟는

經濟力에 어울리지 않은 과다한 國防費支出로 不振의 경향이 나타나 1950年代 蘇聯의 國民所得은 10.2%, 工業生産은 12.5% 年平均 成長하였으나 1960년에는 國民所得 5%와 工業生産 4.8%로 경감하였다. 이에 브레즈네프는 西方側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통한 技術革新으로 經濟不振을 극복코저 하였다. 西方側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의 先決은 資金導入이고 이의 전제는 緊張緩和政策이었다.

브레즈네프는 1966年 3月 第23次黨大會에서 「國際關係의 平和的 協力の 發展을 위해서」라는 條件으로 ① 유럽安全保障의 問題에 관한 交渉開始, ② 유럽의 軍事的 緩和와 軍備縮小, ③ 유럽의 現 國境의 인정, ④ 獨逸問題의 調整을 內容으로 하는 「全歐安保會議」¹¹⁾를 제안하였다. 한편 1969년에는 다시 中蘇兩國의 無理 충돌이 發生하여 中蘇關係惡化로 이 中蘇對立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西歐國家와의 關係改善이 더욱 必要하였다.¹²⁾ 그리하여 蘇聯의 對西獨政策은 急轉換하였다. 蘇聯으로서 獨逸問題를 解決하지 않은채 CSCE開催는 어려웠다, 소련의 對獨政策의 제일목표는 獨逸이 蘇聯의 安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機會를 防止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西方側도 獨逸問題의 解決이 CSCE開催의 先決條件이었다. 相互武力不行使와 現國境의 不可侵을 규정하는 「獨蘇條約」¹³⁾이 1970年 8月 12日 締結되고 西베르린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한 「四大國베르린協定」이 1971年 6月 조인되었다. 西獨과 蘇聯關係는 급진전하여 1970年 2月 「獨蘇天然가스협정」¹⁴⁾, 1971年 11월 「獨蘇定期航空協定」, 1972年 7월 「獨蘇通商協定 및 「第2次 天然가스協定」¹⁵⁾이 조인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蘇聯은 兩獨關係의 正常化를 서둘렀다. 東獨은 東歐에서 蘇聯의 政治·軍事的 堡壘이다. 東獨은 蘇聯이 東歐에 마르크스

· 레닌主義 모델로서 이데올로기적·제도적 正統性을 부여한 蘇聯体制에 가장 충성스런 共產主義國家이므로 東獨의 生存은 蘇聯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獨蘇關係正常化와 兩獨關係正常化가 東獨에게 國際間外交的 承認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蘇聯은 計算하였다. 西獨이 할슈타인原則에 입각하여 東獨을 承認한 어떤 國家와도 公式的 外交關係를 거부하여 왔기 때문이다. 東獨에 대한 世界 여러나라의 承認은 國際政治에서 東獨의 역할을 增大시키며 國際的 正統性을 굳히는 것이다. 東獨의 國際的 지위상승은 東獨과 蘇聯의 關係를 강화하고 東西獨關係改善은 모스크바에 의존하고 있는 소련의 東獨에 대한 經濟的 負擔을 줄이게 된다. 반면 소련은 兩獨關係의 正常化는 相互의 시스템作用으로 東獨社會의 自由化를 초래하여 不安定要因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政府次元의 接觸만을 增進하려 하였다.¹⁶⁾

그외에 소련이 종래의 外交政策을 급 전환하여 對西獨關係正常化와 兩獨關係正常化를 서둔 政治的 理由는 西獨의 우수한 經濟力과 科學技術이 소련과 東歐諸國으로 보아 最適의 對象이라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西獨과의 關係를 緊張狀態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不自然스런 일이지 않을 수 없었다.

(2) 蘇聯의 對西獨 宥和政策過程에서의 울브리히트退場과 호빅커登場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東獨 第1書記는 冷戰時代부터 소련을 위해서 西獨에 대한 保壘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그의 外交政策은 東獨에 絶對적인 影響力을 行事하여온 소련의 外交政策과 일치하였다.

東獨의 「獨逸社會主義統一黨」(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SED)은 少数엘리트로 지배되는 소련과 같은 레닌
 型的 共産黨이다. 스탈린主義의 추종자였던 울브리히트 第1書記 獨裁
 體制를 1953年 스탈린의 죽음이 흔들었다. 소련에서는 말렌코프首相
 의 柔軟路線이 支配적으로 되고 經濟는 重工業보다 輕工業을 重視하였
 다. 17) 東獨의 勞動者들은 1953年 전국 主要都市에서 秘密·自由選舉
 實施, 政治犯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는 소련의 戰車로
 진압되어 스탈린의 죽음에 따른 독재체제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1956年 후르시초프의 自由化政策의 影響으로 폴란드와 헝가리 사건이
 울브리히트를 위협하듯 하였으나 53年의 체험과 헝가리의 비극적인
 結말을 본 勞動者들이 동조하지 않아 그의 체제는 굳혀졌다. 1960
 年에 그는 나머지 50%의 농장을 집단화하는 經濟政策을 實施하였다.
 이 때문에 西獨에로의 피난민이 급증하여 勞動力의 流出을 막기 위하
 여 베르린장벽을 1961年 8月에 구축하였다. 그때까지 200만 이상이
 東獨을 탈출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東獨은 國家存在의 기초를 굳히
 고 1966年 東獨은 유럽에서 蘇聯, 西獨, 英國, 프랑스에 다음가는 工
 業生産國이 되고 1970年에는 世界8位의 工業國으로 成長하였다. 18) 이
 러한 經濟成長을 可能케한 다른 이유의 하나는 1963年以來 도입한
 「經濟計劃 및 經濟의 新制度」이다. 1962年 소련이 리베르만 經濟
 學 教授에 의한 利潤方式에 기초한 經濟理論을 채용하자 東獨도 1963
 年 「新經濟體制」(Neues Ökonomische System = NOS)로 종래의 計
 劃經濟의 結함을 시정하여 中央官廳의 官僚制的 指導아래 遂行되던 經
 濟活動을 人民企業聯合(Vereinigung Volkseigner Betriebe =
 VVB)에 부여한 市場原理, 利潤動機를 채용하였다. 19) 그외에 1957年
 이후 소련과 東獨과의 經濟改善이 東獨經濟成長에 기여하였다. 20)

東獨의 經濟的 自由化는 政治的 自由化를 수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울브리히트政策은 유럽에서 東西關係의 緊張緩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以前까지만 유효하게 作用하였다. 반대로 1960年代 후반부터 시작된 유럽에서 東西關係의 代價로 울브리히트의 지위는 흔들리기 始作하였다. 1968年 체코의 自由化 움직임 때, 울브리히트는 소련의 군사개입을 적극적으로 主張하여 소련側에 유리하도록 사태를 진전시키는 데 重要的 役割을 하여 소련의 外交政策에 일관성 있는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蘇聯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CSCE 개최의 전제조건인 獨逸·베르린 問題를 解決하여야 되었고, 中蘇對立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蘇聯自體의 經濟問題때문에 西獨과의 協調의 必要로 對西獨關係와 兩獨關係 正常化 政策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1969年 12月 소련·西獨間交涉, 1970年 2月 폴란드·西獨間交涉, 1970年 東西兩獨間 交涉 및 四大國베르린 交涉이 개시되자 울브리히트는 西베르린을 「東獨領土上의 特別行政單位」로서 인정할 것과 「國際法上의 東獨承認」을 主張하여 蘇聯의 對西獨 宥和政策과 正面으로 충돌함으로써 時代의 要請에 유연하게 對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非妥協的인 울브리히트는 蘇聯과 東歐頂上會談, WP의 政治諮問會에서 그의 對西獨強硬論으로 고립되어 실각되었다.

1971年 5月 3日에는 蘇聯의 代價政策에 맞선 울브리히트 대신 호네키(Erich Honecker)가 東獨의 第1書記에 취임하였다. 그후 계속 紛爭의 核이었던 베르린 四大國協定이 1972年 4月에 조인되고 같은 해 12月 東西獨基本條約이 調印되었다.²¹⁾

Ⅲ. 西獨의 內的 狀況의 變化

1. 冷戰과 아데나워首相의 環境認識

西獨은 1949年 國家의 機能을 되찾았다. 그러나 유럽으로 부터 獨逸國民에 대한 不信으로 國家를 방위할 軍備와 獨自的인 外交政策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外勢에 의한 分斷의 시련에 걸친 國家로서의 自主性 喪失을 의미하였다.

1871年 統一된 獨逸은 第1次大戰과 그후 全体主義의 대두로 第2次大戰을 일으켜 유럽에 치속적인 政治的 波亂을 가져와 늘 유럽에서 政治的 不安要因이 되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獨逸을 統一前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유럽의 平和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금세기 두번에 걸친 戰爭으로 수천만의 人間이 죽음속으로 밀려났고, 수백만의 罪 없는 市民과 兵士들이 불구자 혹은 폐인이 되었고 화려했던 거리와 繁榮했던 都市들이 잿더미로 화한 체험은 유럽인이 獨逸을 不信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獨逸의 分斷이었다. 카아르 야스페르스는 獨逸人은 1·2次大戰을 통하여 저지른 이러한 罪의 댓가로 統一을 체념하여야 된다고 主張했다.²²⁾

西獨의 초대 首相 아데나워 (Konrad Adenauer)는 外交政策權利와 國際政治에서 能動的 主体가 되는 西獨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外交 目標은 西獨이 過去의 편협한 民族主義로부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유럽 통합」으로 西方國家들에게 부여된 權利와 獨逸의 이해를 타협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²³⁾ 이러한 아데나워의 認識으로부터 초기 西獨外交政策에 있어서 方向設定의 要因은 소련을 中心으로

한 共產圈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면서 自由世界속에서 유럽 통합을 成功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소련에 대해서는 防衛的 또는 反蘇聯的인 外交政策을 그리고 自由世界에 대해서는 積極적·협력적 인 政策을 취하여야 되었다.²⁴⁾

西方側에 積極的·協力的인 外交政策은 西獨憲法에 正當化되어 있는²⁵⁾ 「獨逸統一」이라고 하는 獨逸外交政策의 民族的 目標와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西獨內部에서 많은 論亂을 일으켰다. 獨逸社會民主黨(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 SPD)은 아데나워의 外交路線은 獨逸分斷을 영구화하는 政策路線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데나워의 統一政策은 獨逸問題에 대한 解決의 열쇠는 美國과 蘇聯이 가지고 있으며, 蘇聯이 수락할 수 있는 統一政策은 西獨으로 하여금 西方同盟國들로부터의 分離를 의미한다는 신념에서 出發하였다.²⁶⁾ 아데나워首相은 우선 유럽에서 프랑스와의 關係改善으로 獨逸人에 대한 유럽인의 불신을 제거하고 自由世界에서는 NATO內에서 再武裝을 함으로서 西獨의 지위를 다지고 西獨의 국력을 배양하려고 하였다. 1949년에는 獨逸에 두 獨逸 政府가 樹立되고, 1950년에는 西側三國이 外相會議를 열어 西獨의 國軍創設을 승인하였다. 西獨軍隊의 NATO에의 편입문제를 日程에 두고 西獨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의 선택의 가능성 앞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두 獨逸이 再武裝하여 東西獨이 軍事블럭에 加盟하여 서로 대립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再軍備를 포기하고 獨逸을 中立統一하는 것이었다. 西獨의 再軍備로 西方側 防衛体制의 強大化를 우려하는 소련은 「中立統一」의 獨逸政策을 제안하였다.²⁷⁾ 1952年 3月 스탈린이 西方側에 보낸 「對獨平和條約」에 관한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獨逸은

統一國家로서의 재건과 同時에 분단이 종식되고 獨立·民主的인 平和愛護國家로서 發展할 可能性을 獲得한다. 2 모든 집령군은 平和條約의 發生으로부터 1年後 그 군대를 철퇴시킨다. 3 獨逸은 對獨戰爭에 참가한 國家와 더불어 聯合이나 軍事同盟에 가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西獨은 소련의 제안을 즉시 거부하고 獨逸國民의 自由로운 의사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한 全獨逸政府의 設立을 主張하였다. 아데나워首相은 獨逸이 소련의 제안대로 中立化統一되면 獨逸은 西歐에의 통합이 불가능하고 美國은 유럽으로부터 떠나 결국 全유럽은 公산화될 것을 우려하였다.²⁸⁾ 아데나워首相은 西歐가 단결하여 힘을 증대하면 소련은 스스로 理性的으로 대화에 應할 것이며 美國, 英國 그리고 프랑스는 自由選舉의 前提가 전독일에 있어 이루어지지 않고는 平和條約에 應하지 않을 것이며 領土問題는 포츠담에서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3月 25日 성명을 發表하였다.

西歐가 단결하여 소련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소련의 힘의 立場에 대하여 一步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決意를 보이면 소련은 東獨에 대한 政策을 양보할 것이다. 그러므로 西獨만의 東獨과의 單獨交渉은 西獨이 혼자 강대한 소련과 交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西獨은 패배할 것이다. 때문에 西獨은 西歐와 團結하여 西歐가 西獨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소련과 交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西獨은 西歐側의 完全한 信賴를 獲得하지 않으면 안된다. 西獨이 西歐의 一員이라는 確信을 가지면 西歐는 西獨을 위하여 西獨과 團結하여 소련에 대처한다. 만일 西獨自信이 서구의 一員이 되는 일에 動搖를 하고 疑惑을 가지면 西歐가 西獨을 不信하여 西歐는 西獨을 제외한 채 西獨의 背後에서 소련과 直接交渉하게 된다. 이에는 獨逸의 犠牲이 따르므로 증대한 危

險이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이 信奉하는 것은 힘의 입장외에는 없으므로 西獨이 힘의 입장을 과시하면 소련은 비로서 양보할 것이다. 現在 西獨은 약하므로 西側은 西獨과 더불어 武力을 증강하여 西歐가 團結해야지 방위에 태만을 보일 경우 蘇聯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데나위에 있어서 緊張緩和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아데나위의 狀況의 定義는 소련의 그동안의 끊임없는 膨脹政策과 韓國戰爭의 體驗의 결과였고 이는 西獨으로 하여금 自由속에서 分斷된 獨逸을 擇하게 하였다: 소련의 影響을 받는 統一된 祖國보다는 分斷속에서의 「自由」를 택하도록 하였다.

1950年 9月 NATO는 韓國戰爭에의 応答으로써 武力增強을 서두르면서 同盟軍은 西獨의 東方엘베강에서 방위해야 된다는 「前進戰略」(forward strategy)을 채택하였다. 西獨을 지키려는 前進戰略은 西獨의 再軍備를 必要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西獨을 포함한 유럽의 經濟·軍事的 統合計劃이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冷戰에 대한 西方側의 反應에 刺戟된 西獨의 復興은 西獨을 둘러싼 유럽이웃나라들게 중대한 問題를 제기하였다. 1950年 이래 美國은 西獨의 기여가 없으면 소련의 공격에 대한 西獨방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西獨의 再軍備를 서둘렀으나 프랑스는 보·불戰爭 및 2회에 걸친 世界大戰의 체험으로 인한 對獨 恐怖感으로부터 西獨의 再軍備를 꺼렸다. 西獨 再軍備에의 필요성과 프랑스의 恐怖와의 調整의 產物은 西獨이 유럽에 통합됨으로서 獨逸의 國力이 全 유럽에 禍를 가져오는 대신 유럽의 福祉와 安全保障에 기여하는 것이었다.²⁹⁾ 유럽통합의 제1보는 당시 프랑스 外相 슈만(Robert Schuman)의 「프랑스와 獨逸의 오랜 對

立을 해소하여 兩國의 石炭 및 鐵鋼資源을 共同의 機關아래 둔다」³⁰⁾
 는 슈만-플렌에 의하여 1950年 5月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
 란드, 룩셈브르크 그리고 西獨은 「유럽 鐵鋼共同体」(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를 결성하였다. 西獨의 유럽에의 복귀
 는 獨逸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對立을 해소하여 西歐를 결속하고 經濟
 發展을 시도하는 對蘇戰略에도 일치하였다. 西獨의 ECSC加入은 西獨
 을 위해서는 國際市場에서 競爭의 機會開放이며 過去 獨逸의 敵國과
 平等한 地位를 회복하는 첫 걸음임과 同時에 主權을 회복하여 西歐列
 強과 西獨의 關係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럽통합의 비전 아래서 過去 不幸을 초래한 편협한 國家主義의 충성
 을 버리고 넓은 유럽에의 충성을 西獨으로부터 기대하였다. ³¹⁾

西方側의 對蘇戰略에서도 西獨은 유럽大陸에서 蘇聯다음으로 強力한
 國家이기 때문에 西獨은 언제나 問題의 發生源이 될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1954年 10月 23日 벨기에, 프랑스, 룩셈
 브르크, 네덜란드, 英國, 이탈리아 그리고 西獨이 「파리協定」³²⁾을 締結
 함으로써 西獨은 「主權」을 회복하고 再軍備의 문을 열게 되었으며
 같은 해 5月 9日에는 NATO의 會員國이 되었다. 이는 또한 西獨의
 對蘇 유럽防衛에의 積極的인 참가를 의미하였다. NATO에 對抗하는
 東側은 WP를 1955年 5月 14日에 締結하였다. WP의 前文은 「再
 軍國化한 西獨과의 유럽통합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共同戰의 결성 및
 새로운 戰爭의 危險을 강화하여……」라 지적함으로써 西獨을 假想敵으
 로 하고 있다. 이로서 獨逸의 分断線에는 世界 양대세력의 힘이 集
 中되어 어느 한 勢力도 獨逸을 獨占的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도 이 獨逸의 분단선을 기점으로 하여 分斷되었다.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美國 冷戰外交時代に 아데나워 外交는 強力한 指導力을 發揮하여 戰爭 뒤의 混亂, 병패 그리고 蘇聯의 膨脹的인 의도로부터 西獨을 지켰다. 그래서 그의 外交는 冷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더욱 效果的 이었다. 아데나워의 國際政治의 本質을 把握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한 政治」(Power Politics, Machtropolitik) 또는 強力한 反共立場에서의 外交의 結果는 그의 「할슈타인原則」이 代表한다: 東獨과 外交關係를 가진 第3國과는 外交關係를 갖지 않으며 西獨만이 全獨逸을 代表한다는 外交原則이다. 그래서 獨逸統一은 西獨이 우선 유럽에 통합되어 東獨이 經濟的·政治的으로 보다 強力하고 건전한 西獨에 併合되는 일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結果 아데나워 外交는 스스로 할슈타인原則에 구속되어 그 柔軟性을 喪失하여 國際體系가 多元化되고 國際關係가 緊張緩和方向으로 진전될 때 그의 強硬한 外交路線은 退色할 수 밖에 없었다.³³⁾

戰後 科學技術의 엄청난 발달,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發達は 主權國家의 틀을 털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相互의 交流를 더욱 擴大시켰다. 國際關係에서도 內政과 外交의 直結은 시스템간의 相互作用의 增大로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속에서 外交原則의 고수는 變化하는 外的 環境에 適應을 어렵게 한다. 1960年代에 들어와 많은 아프리카 國家들이 獨立하여 主体的으로 國際關係에 參加하게 되어 어떤 한 國家가 國家로서 特定の 條件을 구비하면 國際社會에서 國家로서 承認을 받는 政治的 傾向으로 어떤 한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承認問題를 저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主權的 行爲에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할슈타인原則 適用은 점점 어렵게 되어갔다. 할슈타인原則으로 東獨을 承認한 國家에 대한 外交關係斷絶은 西獨에 있어서 그만한 댓가가 따르기 마련이었으나 아데나워는 변모하는 國際環境과는 달리 이 할슈타인原則의 適用을 고집하였다. 西獨이 할슈타인原則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政權交替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2. 經濟復興과 西獨의 繁榮

敗戰後 獨逸의 경제재건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었다. 철저한 붕괴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都市는 荒廢하고 生産力은 약하였다. 그러나 勤勉, 節約, 合理性, 철저성이라고 하는 獨逸國民性, 大戦後의 마샬計劃에 의한 美國으로부터의 經濟援助 그리고 西獨의 우수한 經濟体制인 「社會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는 西獨 經濟의 기적을 가능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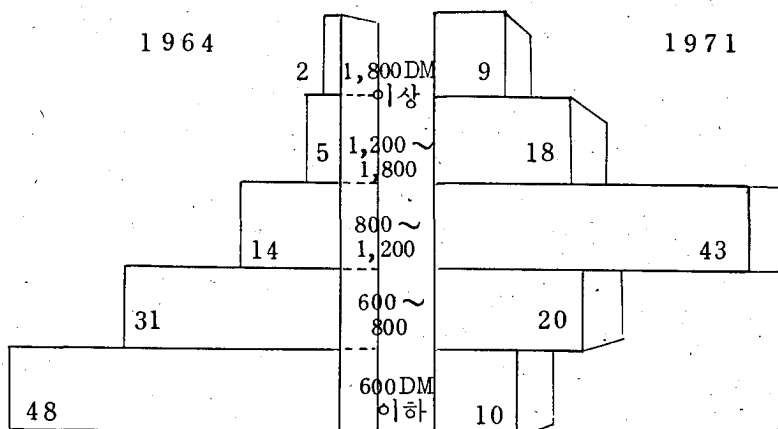
社會市場經濟의 概念³⁴⁾은 물러-아르마크(A. Müller-Armack) 教授가 창출하였다. 이 經濟体制은 新自由主義理論에 기초하여 社會的 責任을 가진 自由로운 市場經濟의 原理에 속한다: 通貨의 安定, 完全雇用의 確保, 一般福祉의 向上을 目標로한 國民經濟의 立場으로부터 完全한 自由放任主義的 經濟体制가 아닌, 國民生活에 나쁜 影響을 미치지 않기 위한 企業의 存立條件을 社會的으로 규제하는 措置를 취하는 資本主義 틀내에서 所得의 公정한 分配와 社會福祉를 實現하려는 制度이다.

이 社會市場經濟는 아데나워 내각의 經濟相 에르하르트(Ludwig Erhard)가 實施한 經濟政策이었다. 이 經濟政策은 戰爭후 西獨의

憲法이 명문화한 「社會國家」(Sozialer Staat)³⁵⁾의 概念과 일치하며 社會國家의 本質을 이루는 「社會的 公正」(Soziale Gerechtigkeit)을 實現하기 위한 것이다. 自由競爭의 市場經濟原則아래서 社會의 利益이 일부에 偏在되면 政治·經濟的인 모든 社會集團은 均衡을 이룬 活動이 要請된다. 즉 社會의 利益이 偏在되는 傾向이 있을 때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指向하는 社會國家의 概念에 따라 一般國民의 福祉를 위한 法的인 調整과 義務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므로 이 社會市場經濟體制는 社會的 公正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家가 社會的인 均衡을 이루려는 制度이다.³⁶⁾

社會市場經濟는 1948年 通貨改革이 실시될 때 市場의 經濟메카니즘에 對答하게 適用하여 1952年에 西獨의 外貨保有高가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外貨保有高를 능가하게 되었다. 1950年代 經濟成長을 기반으

1964 ~ 1971年 사이에 西獨의 中產階層



로하여 1960年代 西獨의 經濟政策은 「市場」보다 「社會」에 重點을 두어 「完全雇用」, 「社會保障制度의 充實」 그리고 「勞動者의 財産形成」等의 社會政策을 과감하게 推進하였다. 物質的 궁핍으로부터의 恐怖와 社會的 差異를 제거하는 實質的인 自由가 지배하는 社會를 지향하려는 努力에 經濟政策의 우선을 두었다.³⁷⁾

그 結果 西獨의 중산계층은 社會階層의 大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³⁸⁾ 月收入 600 마르크 以下가 1964년에는 48%였으나 1971년에는 10%로 減少한 대신 月收入 800 마르크에서 1,200 마르크까지의 比率은 14%에서 43%로 增加하였다. 이는 西獨의 政治·社會·經濟的 安定을 그대로 나타낸다. 國民所得向上도 戰後부터 1961年 9.5%, 1965年 9.6%, 1966年 6.1%, 1967年 -0.3%, 1968年 10.9% 그리고 1971年 10.1%로 꾸준히 增大하였다. 한편 國民所得의 分配率을 보면 1950년에 經營者와 勞動者사이의 分配率이 42:58이었으나, 1972년에는 31.7:68.3으로 勞動者의 分配率이 훨씬 앞서게 되었다.³⁹⁾ 이러한 戰後 西獨經濟의 奇蹟은 6인이 1인의 難民을 흡수·동화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⁴⁰⁾

그러므로 西獨의 經濟는 브란트首相의 東方外交의 成功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¹⁾ 1966년부터 1967年 사이에 一時的 不況現象이 있을 때 西獨의 極右政黨은 東方領土의 탈환을 主張하였다. 結局 西獨의 거대한 經濟力은 政治的 交涉能力을 增大시켰다. 더불어 西獨의 EEC 豫算 30% 支払은 유럽에서 政治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自由의 領域의 증대를 不可避하게 수반하였다.

3. SPD와 獨逸의 將來

(1) 初期 SPD의 外交路線

大戰中 SPD의 方向은 獨逸의 軍事的 패배와 히틀러 政權의 붕괴가 유럽의 平和와 民主主義의인 새로운 獨逸將來의 前提條件이라 보고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民主的 法治國家의 建設과 공산주의와의 대치로 일관되었다.

1945年 10월 10일 나치스와의 투쟁에서 살아 남은 SPD의 간부는 党的 再建을 위해 하노버의 베니그센에 처음으로 모였다. 1933년 이래 나치스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끌려 다니면서 迫害를 받아 오던 슈마허 (Kurt Schumacher), 런던의 망명간부 대표 올렌하우어르, (Erich Ollenhauer) 그리고 베르린의 그로테볼 (O. Grotwohl)이 모였다. 그로테볼은 공산당과의 연합을 提案하고 슈마허와 올렌하우어르는 SPD의 獨立을 強調하였다. 마침 1946年 4月 22日에 東獨에서 「社會主義統一黨」이 創立되자 SPD는 5月 10日에 再 결성되어 党首에 슈마허가 그리고 副党首에 올렌하우어르가 당선되었다. 슈마허의 바, 이마르 공화국으로부터의 비극적인 체험과 나치스의 강제수용소에서의 고난은 전후 SPD출발의 方向에 反映되어 SPD로 하여금 國民은 國家속에서 民主的인 自由를 획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굳히게 하여다. 外交路線에 있어서 SPD는 獨逸共産黨을 獨逸의 利益이 아닌 소련의 利益을 지키는 소련의 대변자라 간주하고 自由와 獨재의 투쟁에서 自由世界側의 利益을 主張하였다. 슈마허의 獨逸統一政策은 ① 領土問題에 있어서 1937年 獨逸領土의 회복과 「잘」地方의 반환, ② 베르린首都의 고수 ③ 독일분단 반대⁴²⁾로 要約된다. 이는 당시 「新 民族主

義」로 불리워졌다. 分斷된 獨逸은 유럽과 世界의 平和에 持統的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認識의 結果였다.

1952年부터 SPD內에서 獨逸平和問題가 활발하게 論議되었는데 그것은 아데나워의 統一政策과 相廻을 이루었다. 獨逸을 유럽에 통합하자는 아데나워의 主張에 적극반대하였다. 마샬계획에 기초한 유럽통합정책에 대해서 SPD는 유럽통합은 ①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保守勢力의 結合을 위한 기구이며 ② 西獨의 經濟體制를 프랑스에 귀속시키려는 策략이며 ③ 독일통일을 어렵게 한다는⁴³⁾ 이유로 반대하였다.

獨逸 再統一의 立場으로부터 출발한 SPD의 初期 外校路線은 冷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非現實的이었다. 社會民主黨 再建初期에 있어서 指導層의 大部分은 나치스에 반대하는 抵抗運動의 精神으로부터 손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社會民主黨은 세계와 獨逸의 政세변화에 対応하는 政策과 戰略의 모색에 柔軟性이 缺如되어 있었다. 아데나워 首相이 西獨의 재무장과 NATO加入을 推進할 때 SPD는 다시 반대하였다. 社會民主黨은 소련이 戰勝國으로서 獨逸問題에 共同決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의 理解가 앞서야 한다는 立場을 고수하였다. 西獨의 재무장이 소련을 자극하면 國際關係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어 獨逸統一의 기회는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主張이었다.⁴⁴⁾ 그러나 西獨 國民은 共產主義인 東獨의 經濟와 政治에서 自由와 民主主義에 반대되는 억압과 全體主義的 獨재의 위협을 늘 고려하여야 되었다. 더불어 獨逸을 둘러싼 國際情勢는 西獨의 유럽에의 統合과 재무장 그리고 北大西洋 防衛機構에의 加入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아데나워의 狀況認識은 外的 環境에 적응하였다. 西獨國民은 現實的인 아데나워 政府를 扞하였다. 獨逸을 둘러싼 國際情勢의 變化에 適應하는

정책과 戰略의 모색에 失敗한 社會民主黨은 1953年 연방의회 선거에서 CDU/CSU의 45.2%에 대해서 28.8%의 國民의 支持를 얻는 충격에 直面하여 基本的인 政策轉換을 必要로 하였다.

1957年 연방의회 선거에서 SPD는 31.8%, CDU/CSU는 50.2%의 支持로 CDU/CSU는 1953年보다 5%의 增加를 가져왔다.

SPD는 1959年 3月 18日 「獨逸구상」⁴⁵⁾(Der Deutschlandplan der SPD)을 提示하여 처음으로 獨逸再統一의 政治的 目標를 設定하였다. 獨逸構想의 目的은 '유럽에서 平和, 自由, 安全 그리고 社會正義의 政治를 이루는 길을 여는 데'⁴⁶⁾ 있다고 하였다. 그 內容은 獨逸의 再統一을 이루기 위하여 ① 東西의 交涉을 통한 긴장완화 ② 東部유럽에서 軍備縮小 ③ 獨逸의 核武器 禁止이다.

그 具體的인 提案은 ① 兩獨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를 包含한 緊張緩和 地帶設定 ② 이 緊張緩和 地域에서 軍備縮少와 NATO 그리고 WP 軍隊의 철수에 대한 合意 ③ 集團安全保障協定에 對한 美國과 소련을 包含한 모든 關聯 國家들에 의한 保障이다.⁴⁷⁾ 독일구상⁴⁸⁾에 앞서 SPD는 이미 1957年에 西獨의 EEC加盟에 贊成하고 유럽통합에 지금까지 고수하여 오던 반대의 立場에 對한 철회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SPD의 轉換의 조짐이었다.

(2) SPD의 現實認識과 獨逸政策 轉換

50年代 후반에는 SPD의 政策轉換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력이 SPD내에 形成되었다. 生命體처럼 끊임없이 變化하는 世界情勢에 對應하여 政策能力과 統治能力있는 獨逸社會民主黨을 이끄는 指導者들은 (Willy Brandt), 베-네르(Herbert Wehner) 그리고 엘러

(Matthias Erler)였다. 그들은 黨의 進路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거쳐 SPD로 하여금 轉換의 時代를 맞이하게 하였다.

現實的인 立場에서 獨逸의 再統一問題를 構想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의 防衛概念을 設定하려는 시도가 1958年 슈투트가르트 黨大會의 重要한 의제로 등장한후 1959年 3月의 獨逸計劃과 더불어 1959年 11月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定着되었다. 勿論 SPD는 그들의 基本路線이 定着되기 前까지 어려운 昏迷를 체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왜냐하면 國防, 서구통합 및 NATO에 대한 SPD의 자세는 지금까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SPD가 이 問題에 처한 부정적 자세를 계속한다면 實際 一般國民의 信賴獲得은 不可能하였다. 그것은 1957年의 선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후 政治的 路線變更의 討議가 집중적으로 始作됨과 더불어 獨逸社會民主黨內의 指導層의 改選이 SPD의 政策轉換을 可能케한 것이다. 그 轉換點은 1959年의 「고데스베르크 강령」⁴⁹⁾ (Godesbergprogramm)이다. 이 강령은 SPD가 마르크스主義로 부터 결별하여 西獨 既存의 社會·經濟體를 基盤으로한 國民政黨으로서의 새출발을 다지고 西獨의 秩序擔當者의 位置를 기약하였다. 哲學과 宗教의 面에서도 多元主義의 立場을 選擇하였다. 經濟秩序에서도 生産手段의 私有와 市場의 自由를 認定한다. 資本主義 經濟活動이 國民經濟의 에너지를의 源천이며 國民生活 水準의 向上에 기여하였음을 그대로 認定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은 人間의 自由를 철투철미 탄압하며 人間의 權利와 個人 및 民族의 自決權을 억압한다 라고 비난하면서 西獨의 國防體制에 積極적 태세를 表明하였다. 政策能力, 統治能力 있는 黨을 建設하기 爲하여 과격한 사고로부터 해방하여 國民의 輿論에 一致한 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이로서 지금까지 一般 國民이 SPD에 품

있던 의구심으로부터 信賴받는 政党的 기반을 조성하였다.

1959年11월부터 1960年6월까지 SPD는 外交政策領域에서 180°의 方向轉換을 가져왔다. 그 理由로는 앞서 言及한 國內政治體系에의 SPD의 適應, 그리고 SPD의 指導層의 變化 外에 獨逸問題에 대한 소련의 態度를 들 수 있다. 1959年3月11日부터 3月17日까지 SPD의 에르러 (Fritz Erler)와 슈미트 (Carlo Schmid)는 3月18日 공표될 「獨逸構想」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旅行하였다. SPD는 獨逸問題에 관한한 늘 對蘇接近을 試圖하여 왔으므로 후르시초프와 직접만나 獨逸問題에 對하여 協議하려 하였다. 두 政治人은 獨逸構想의 政治的 目標, 베르린問題, 獨逸統一問題 中部유럽의 安全에 對하여 軍備縮小와 交渉을 통하여 解決하는 可能性을 기대하였으나 후르시초프는 蘇聯은 獨逸統一에 對하여 관심이 없다고 說明하므로써 SPD의 獨逸構想에서 시도한 政治的 目標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50)

그 이전 1958年10月27日 東獨의 울브리히트 제1서기는 소베르린은 東獨의 主權아래 있으므로 西側은 占領統行的 法的 根拠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상 占領體制를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11月10日에 후르시초프는 西獨의 獨逸統一을 爲한 英·美·仏·蘇 四大國 委員會 開催에 대한 提案은 非現實的 政策이며 참으로 統一을 바란다면 東獨과의 접촉의 길을 選擇하여야 된다고 主張하였다. 蘇聯은 베르린에 있어서 權能을 東獨에 委任함으로 東獨과 協定을 締結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51) 이에 美國은 베르린駐留와 出入에 관한 西側三國의 權利는 포츠담협정의 結果가 아니라 나치스의 獨逸 패배에 기초한 占領權이라 하였다. 蘇聯은 다시 1958年12月27日 西側三國과 兩獨逸에 覺書를 보냈다. 이 각서는 西베르린을 「非武装自由都市」로 하

자는 提案이었다. 西베르린의 自由化와 더불어 東獨이 陸·海·空에 대한 主權을 행사한다는 内容이다. 52) 西側은 西베르린의 自由都市 案을 거절하였다. 이 提案에 대한 蘇聯의 政治的 의도는 西베르린에 관한 東西兩獨의 直接交涉을 계기로 西獨의 東獨에 대한 承認을 얻으려는데 있었다.

蘇聯은 다시 1959年1月10日 美國, 英國, 프랑스 그리고 西歐의 諸國에 대하여 對獨戰爭에 參加한 28個 國이 2個月以内 「對蘇平和會議」의 開催를 提案하고 「對獨平和條約草案」을 提示하였다. 53) 草案 6部, 48條로 되어 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1. 聯合國은 獨逸의 完全한 主權을 承認한다(第3條)
 2. 獨逸은 조약서명국의 어느쪽의 軍事同盟에 加入해서는 안되고 이 조약발효와 동시에 바르샤바조약, 北大西洋條約 그리고 西歐聯合으로부터 탈퇴한다(第5條)
 3. 이 條約 발효 1年以内에 모든 外國軍隊가 철수하고 軍事基地도 철폐되며 將來 外國軍隊의 주둔, 外國의 軍事基地의 設置를 허락하지 않는다(第30條)
 4. 獨逸이 統一國家로서 부활할 때까지 西베르린을 非武装自由都市로 한다(第25條)
 5. 獨逸의 國경은 1959年1月1日 現在의 것으로 하고 오데르·나이제線 以東은 폴란드와 蘇聯에 속한다(第8, 9條)
 6. 조약발효 후 연합국은 獨逸의 UN加盟을 支持한다(第7條)
- 獨逸問題에 대한 蘇聯의 政策은 西獨의 NATO加入 저지와 西歐에의 統合을 저지하는데 우선을 두었다. 그래도 SPD의 두 政治家는 蘇聯과 獨逸問題를 論議하려 모스크바를 訪問하였으나 SPD의 蘇聯에 대한

기대가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確認하였다. 모스크바로부터 돌아온 에르레는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蘇聯은 現狀을 고착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서 蘇聯은 獨逸分斷을 고정시키려고 한다”라 하였다.

蘇聯의 西베르린 自由化 提案 後 東獨으로부터 西獨에의 피난민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SPD는 에르레의 모스크바 訪問後 蘇聯은 西獨의 NATO 加入을 저지하기 위하여 독일중립화 案을 提示하였으며 獨逸의 分斷과 유럽질서의 現狀維持를 고수하려는 現實을 認識하게 되었다.

SPD가 獨逸構想을 마련한지 1年째되는 1960年 3月 18日 베-네르스는 「1959年の 獨逸構想은 죽은 軌道로부터 再統一交渉을 내려놓으려는 시도의 一環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目標를 達成하지 못하였으므로 과거에 속한다」고 表明하여 SPD 外交政策의 급 전환을 시사하였다.⁵⁵⁾ 뿐만 아니라 그는 獨逸의 軍事的 現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다. 이미 SPD內에 獨逸問題에 있어서 政府와의 공통의 出發點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기 始作하여 1960年 6月 30日 헤르베르트 베-네르가 연방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共通의 外交」⁵⁶⁾ (Gemeinsame Außenpolitik)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럽統合과 大西洋條約體制는 獨逸統一政策과 外交政策의 基本전제이다.
2. 모든 獨재의 반대와 西歐共同體와의 協力
3. 蘇聯占領地域의 1千7百萬 동포의 고통스런 生活의 負擔을 덜어 주려는 努力
4. 共產主義때문에 分열된 유럽이 다시 分열되어서는 안된다.
5. 西獨은 世界平和의 保障을 위하여 軍事的 安全을 위한 努力을

한다.

6. 自由로운 基本權과 民主的 基本秩序를 지키기 위한 西独防衛와 西独의 국방군 인정

7. 独逸統一을 위한 모든 이니시어티브의 發揮

이러한 베-베르의 발언은 종래 SPD가 반대하여 왔던 아데나워의 外交政策에 대한 승인이며 SPD 外交政策의 一大 轉換을 의미하였다. 이로서 西独의 여당 CDU/CSU와 야당 SPD와의 独逸問題에 대한 合意가 얻어진 셈이다. 独逸統一과 独逸의 安全問題에 대하여 비타협적이었던 独逸社會民主黨은 協力的인 野黨 (Kooperative Opposition) 으로 되었다.

SPD는 野黨의 位置에서 独逸의 미래를 担當할 집권당이 되는 전제조건인 國民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外交政策 方向設定에 있어서도 이러한 轉換의 過程을 必要로 하였다.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고데스베르크 강령이 社會·經濟政策에 있어서 國民政黨으로서의 基盤이 됨으로서 집권당이 되는 戰略의 제1보라면 이 外交政策의 전환은 戰略의 제2보에 해당하였다.

1960年은 SPD 外交政策의 轉換期이다.

独逸 再統一問題에 있어서 現實의 두꺼운 장벽에 직면하여 黨의 이론과 戰略을 SPD의 새로운 指導層이 整備함으로서 그들이 선언한 与野共通의 外交政策에 適応過程에 該當한 大聯立政權의 可能性을 開拓하였다.

(3) 브란트首相의 東方外交

1961年 聯邦議會選舉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SPD의 黨勢는 國民으로부터 36.2%의 支持를 얻어 1950年 選舉에 31.8%에서 5.4%의 지지기반이 擴大되었다. 반대로 與黨 CDU/CSU는 1957年 50.2%에서 1961年 45.3%로 4.9%의 지지기반을 잃었다.

브란트는 1962년에 獨逸社會民主黨의 副黨首가 되고 1963년에는 올렌하우워르 뒤를 이어 黨首가 되었다. 1965年 연방회의 선거운동때 브란트 黨首는 「獨逸聯邦共和國은 經濟的 巨人이나, 政治的으로는 小人이다」⁵⁷⁾라 하여 西獨의 政治的 地位를 經濟的 지위까지 높여야 된다는 必要性을 國民들에게 強調하였다.

1960年代 프랑스의 드골大統領은 프랑스 民族主義的 外交政策을 취하여 지금까지 休眠狀態에 있었던 西獨의 外交政策에 자극을 주었다. 아데나워의 再統一政策보다는 西獨도 自主的인 外交政策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유혹을 강하게 자극한 것이다. 이러한 유혹은 실제 「제3세력」으로서 「統合된 유럽」이라고 하는 理想에 의하여 저지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共同市場의 政治目標로서 具體化된 對策도 프랑스가 共同市場의 内外에서 추구한 프랑스 利益 中心의 外交政策은 유럽 통합이나 유럽共同市場이 하나의 理想의 領域으로만 생각되어 獨逸國內에서 強力한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소련은 유럽全體의 安全保障問題와 關聯해서 東獨의 共產主義와의 關係를 強化하고 獨逸統一은 西獨과 東獨의 쌍방의 問題라고 하였다. 1964年 6月 12日에는 東獨과 소련간의 「友好相互援助協力條約」이 締結되고 東獨의 經濟的 기반도 安定되는 方向으로 진전되었다. 소련에 다음가는 경제대국이된 東獨은 1968年 新憲法을 採択하였는데 그 憲法속에 「社會主義」를

強調하여 獨逸民族이라는 말은 자취를 감추었다. 獨逸統一은 東獨보다 經濟적으로 強力하고 政治적으로 健全한 西獨에 병합되는 것을 必然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意見이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세아래서 1965年 選舉때 獨逸社會 民主黨은 득표율 39.3%로 지난 선거때 보다 3.2%의 增加를 가져왔다. 베르린問題로 동서의 緊張이 긴박하게 될 때 베르린 市長이었던 브란트가 보여준 行動力은 SPD의 支持率의 增加를 가져온 것이다.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뚜렷한 社會·政治的인 要素에 근거하여 東西獨의 「相互影響關係」로부터 東側, 鐵의 帳幕속의 自由化, 民主化 그리고 人間을 존중하는 경향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그 具體的인 方法으로 相互武力拋棄와 現狀維持에 대한 相互尊重의 基盤에서 유럽安保體系의 安定을 이루고 NATO와 WP간의 軍事的 對立을 協力的인 軍備制限의 조치와 政治·經濟協力の 強化를 통하여 유럽의 緊張을 緩和하고, 다음 단계로 「歐洲安保體制」의 질서를 형성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의 동방정책은 지금까지 野黨이었던 그의 社會民主黨이 1966年 12月 「大聯立內閣」에 參加하여 그가 外相에, 베르너가 西獨問題相에 취임하면서 부터이다. 1966年 11月 26日 大聯立政權에 參加를 決定하는 党内 討論에서 브란트는 SPD는 SPD 黨史와 獨逸歷史에 重大한 時點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聯立政權成立 交渉 時의 「8個項目 프로그램」은 政策協力の 폭 넓고 長期的인 基礎가 될 것이라고 表明하였다.⁵⁸⁾ 그 內容은 1. 核保有의 共同 단념 2. 東歐諸國과의 關係正常化와 和解의 추진 3. 東獨과의 關係에 있어서 經濟文化, 技術, 旅行, 交通 및 스포츠를 통한 접촉과 交渉이다. 브란트는

이를 外交政策의 重要한 方針으로 要求하여 獨逸의 再統一보다는 緊張緩和政策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브란트는 獨逸分斷의 극복은 유럽의 平和保障 즉 歐洲의 緊張緩和속에서만 可能하다고 간주한 것이다. 브란트의 이러한 外交構想은 西獨이 冷戰의 論理로부터 탈피하여 유럽의 現實을 인정한 것을 意味한다. 브란트에 있어서 「大聯立政權時代」 그의 外交는 內外的 狀況에의 適應過程에 該當한다.

브란트는 東獨에 接近을 시도하면서 東獨과의 關係를 正常化할 것을 提議하면서 東獨 政府機關과 交涉을 할 用意가 있음을 1967年 4月 12日 東獨에 알렸다.⁵⁹⁾ 同時에 그는 英國을 訪問하여 東西緊張緩和에 대한 西獨政府의 의지를 明確하게 밝히고 유럽에서 平和政策의 進전이 積極적·구조적으로 進行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強調하였다.⁶⁰⁾ 東西獨關係 改善에 있어서 同盟國의 理解와 信賴를 먼저 必要로 하였고기 때문이다.

東獨政府와의 交涉을 촉구할 때 브란트는 西獨의 單獨代表權을 단념하지 않았다. 東獨은 이를 비난하였다. 그래도 社會民主黨은 持續的으로 「接近에 의한 變化」(Wandel durch Annäherung)의 政策을 提議하며 SPD의 東方外交姿勢가 東獨에의 접근을 기피하는 CDU/CSU의 政策과는 對照的이었다.⁶¹⁾

브란트外相은 폴란드에 대해서 交涉用意를 시사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대한 交涉도 개시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폴란드는 交涉의 전제는 오데르 나이제 국경의 승인이라 主張하였다. 1966年 12月 브란트는 또한 소련과의 武力不行使 宣言을 할 용의가 있음을 表明, 1967年 2月에 宣言案을 소련에 전달하였다. 1968年까지 兩國間의 交書에 의한 交涉이 持續되었다. 소련側에서 提示한 兩國의 關係

改善의 전제조건은 ① 西獨에 의한 東獨의 承認 ② 오데르 나이제 國境의 承認 ③ 1938年의 文해협정의 無效였다. 그러므로 西獨은 大聯立政權의 末期에 있어서 東獨을 國家로서 承認할 것인가 또는 오데르 나이제를 國境으로 承認할 것인가의 決定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브란트는 大聯立政權 아래서 外相으로서 西獨의 外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冷嚴한 現實을 直視할 수가 있었다. 冷嚴한 現實은 東獨이 國家로서 存続하는 것이 罔연한 事實이며 東獨을 어디까지나 소련의 占領地域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소련은 東獨의 共產主義의 成果를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獨逸의 再統一을 통하여 비로소 유럽의 安全이 確保되는 것이 아니라 統一은 유럽의 安全保障의 틀내에서 解決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에 대한 認識이다.

한편 東獨은 60년에 들어와 아랍諸國家들을 중심으로 제 3 세계에 대한 外交政勢를 전개하며 通商關係를 발판으로 外交關係의 樹立에 努力하여 西獨이 종래의 對 東獨政策을 변경하지 않는 한 外交上的 孤立化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싱거首相이 데탕트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어 東歐 여러나라들과의 關係改善에 의욕을 보였으나 黨內的 저항을 어찌할 수가 없어 積極的인 外交政策의 轉換이 不可能하였다. 아데나워가 남긴 外交上的 유산이 기독교 民主·社會同盟에 뿌리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大聯立政權은 東方政策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으로 크게 흔들리기 始作하였다. 브란트 外相과 베-네르 全獨逸問題相은 유럽에 있어서 現狀의 國境을 인정하여 東獨을 國家로서 承認하지 않는 한 소련과 東歐의 여러나라들과의 關係改善은 불가능 하다는

現實認識을 더욱 強力하게 굳혀갔다. 아데나워 外交의 도그마로부터 西獨이 해방하여 外交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行動할 수 있는 自由의 領域을 넓혀 分斷된 獨逸의 將來를 당사자들이 論議하기 위해서도 社會民主黨이 外交의 決定的 이니셔티브를 장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믿어 西獨國民은 社會民主黨에게 42.7%의 支持를 보여 結局 社會民主黨 政府를 挾하였다. 브란트가 認識한 냉엄한 現實의 存在를 西獨國民도 認定하였기 때문이다. 西獨은 社會民主黨의 브란트 집권으로 유럽과 獨逸政治情勢에 새로운 局面을 開拓하여야만 하였다.

브란트는 自由民主黨과의 小聯立政權을 形成하여 그의 東方政策을 東西緊張緩和 努力의 맥락속에서 장해없이 本軌道에 進入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社會民主黨·自由民主黨 內閣의 東方政策은 20여년에 걸쳐 西獨外交를 지배하여오던 아데나워 外交로부터의 대 전환을 의미하였다.

1965年 10月 28日 브란트 首相은 「施政方針演說」⁶³⁾에서 그의 東方政策의 構想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實際 政治의 과업은 분단된 獨逸이 現在의 부자연스런 狀態가 풀려짐으로서 國家의 統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獨逸人은 그들의 언어와 歷史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과 불행을 같이 하였다. 獨逸은 우리 모두의 집이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지 20年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는 獨逸民族의 分斷生活를 막아야하며 더 나아가서는 共存을 이룩하기 위한 並存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獨逸의 利益뿐만 아니라 유럽의 平和와 東西關係에 의의를 가진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들의 友邦의 態度는 東베르린 自身の 態度에 달려 있다. 그외

에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⁶³⁾에게 國際交易과 문화교류의 利益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1966年 12月에 키싱거首相에 의하여 實施된 政策을 계승하고 조약상 合意된 공동작업의 實施를 위하여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게 政府의 레벨에서 평등한 交涉을 要求한다.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國際法上 承認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獨逸內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므로 두 國家는 外國이 아니다. 그들 서로의 關係는 다만 특별한 種類일 수 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前 政府의 政策과 關聯하여 獨逸民主共和國에게도 該當하는 武力의 사용과 위협에 대한 相互의 포기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것을 提案한다.

施政方針에서 外交問題에 관한 요점은 獨逸問題, 베르린問題 그리고 소련과 東歐와의 關係 및 유럽平和問題에 관한 것이었다. 獨逸問題는 ① 獨逸에 두개의 國家認定 ② 一民族 二國家間의 關係를 條約에 의하여 制度化하기 위한 政府間의 交涉提案 ③ 東西獨逸間의 相互武力行使에 關한 協定提案 ④ 東獨에 대한 國際法上 承認의 不必要性 ⑤ 두 獨逸間의 關係를 「內獨逸」關係로 부르고 ⑥ 두 獨逸間의 交易增大強調를 그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베르린과 유럽問題에 있어서는 ① 베르린의 生命力保障強調 ② 베르린 情勢의 緩和나 改善을 위해 東西 베르린간 交通 및 西베르린 出入交通의 緩和 ③ 美國, 英國 및 프랑스가 베르린問題에 對하여 소련과 交涉을 추진토록 要請 ④ 소련과 東歐와의 關係에 있어서 相對國의 領土 保全과 國境을 존중하는 一定한 구속성을 갖는 相互武力不行使協定提案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데탕트를 기조로한 유럽에서 東西關係에 適應하면서 東方政策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東方政策은 政治的 紛爭은 무력을 사

용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무력포기 현상의 국경을 안정함으로서 오데르 나이제 以東의 舊獨逸領土의 포기 그리고 東獨을 西獨과 같이 國家로 認定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西獨을 비난하여오던 소련은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을 환영하기 始作하였다. 브란트首相은 1969年 11月 28日 바로 「核拏散禁止條約」에 서명하였다. 그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브란트政府를 그들 나름대로 評價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란트首相은 東方政策을 推進하는데 東獨과의 和解가 東方政策의 目標라 表明하면서 소련과 폴란드와의 關係改善을 서둘렀다. 그러므로 브란트首相의 東方外交의 特徵은 優先的 交渉의 順位를 關係改善이 비교적 용이한 國家와의 화해를 뒤로 미루고 關係改善에 어려움과 장애가 가장 많다고 하는 國家인 소련과 폴란드와의 交渉을 優先적으로 決定하였다. 브란트는 소련과 폴란드와의 交渉에서 성공하면 다른 東歐 여러나라들과의 화해는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는 認識이었다. 戰略的인 洞察力을 가진 信念에 찬속된 그리고 잘 計劃된 그의 外交方式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1969年 11月 15日 브란트首相은 소련에 대하여 「武力不行使交渉」의 再開를 촉구하여 12月 8日부터 交渉이 再開되어 1970年 8月 12日 모스크바에서 「獨·蘇條約」⁶⁴⁾이 締結되었다. 이 독소조약은 뒤의 西獨과 폴란드사이, 西獨과 東獨사이의 交渉指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獨逸의 分裂狀態가 正式의 狀態로서 認定된 것을 의미한다. 西獨과 소련의 條約상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西獨과 소련은 歐洲의 現狀을 출발점으로 하여 國際平和와 緊張緩和의 達成을 위하여 歐洲情勢의 正常化 및 모든 歐洲諸國間의 平和的 關係와 促進에 대한 努力을 한다.

2. 兩國은 相互關係 및 世界의 安全保障의 確保問題에 있어서 UN 이 규정 한 원칙과 目的에 입각하여 紛爭問題를 오로지 平和的 手段에 의하여 解決하고 歐洲의 安全과 國際安全問題 그리고 쌍방관계에 있어서는 UN 憲章 第 2 條에 따라 武力에 의한 위협과 武力의 행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3. 유럽의 平和를 위해서는 現在의 國境을 침범하지 않고 全歐洲 國家의 國境을 무조건 존중하는 의무를 가지며 現在와 將來에 있어서도 領土要求를 하지 않으며 폴란드의 서부국경을 이루는 오데르-나이제선 및 獨逸聯邦 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을 포함한 全歐洲諸國의 國境을 不可侵의 것으로 간주한다.

(4) SPD와 西獨의 民主主義 能力

1950年代는 民主主義가 팻시즘에 승리하고 第 2 次 世界大戰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大戰동안 축적된 技術이 平和적으로 이용되고 技術社會의 可能性에 대한 밝은 화망이 넘친 시기였다.

그러나 1960年代 후반에는 技術社會의 問題들이 나타나 豊富한 社會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에 의한 技術社會·大衆消費社會에 대한 비판이 일기 始作하였다. 情報社會와 消費·技術社會가 약속하는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西獨도 例外일 수는 없었다. 西獨의 경이적인 經濟復興과 번영, 消費社會와 能力社會가 진전되는 동안 青年들의 欲求不滿은 높아져 60年代 후반은 젊은 에베르기가 폭발할 準備期間에 該當하였다.

오랫동안 獨逸社會에서 知識階層을 양성하여: 大學의 젊은이들이

「體制의 改革」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存在하는 모든 價值에 의문을 던지고 기존의 政治·經濟·社會, 福祉社會, 消費社會, 能力社會에 대신하는 새로운 體制와 새로운 價值를 추구하였다. 高度産業社會, 大量消費社會에서는 利益集團, 正黨, 官僚機構 또는 大衆媒體가 모든 人間의 생존영역을 지배하게 되어, 個人은 어쩔수 없이 무력하여지고 個人의 魂의 調律이 침체하여가는 社會體制 속에서 疎外問題를 解決하려는 젊은이들의 欲求是 體制改革의 要求로 나타났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經濟復興至上主義에 安住하려는 기성의 社會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疎外問題解決을 「參加」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성사회에 대한 반기는 「參加意慾」의 表明이었다. 젊은이들은 民主主義를 본래 自由와 平等의 갈망위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단순한 多數決原理의 節次만이 아닌것으로 간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젊은 青年들은 經濟成長위에 다져진 市民社會가 規格化되어 가는 것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한 反權威主義였다. 1968年 봄에는 學生의 運動이 全國적으로 擴散되고 暴力化境向을 띠게 되었다. 그들은 民主主義와 自由의 擴大를 要求하였다. 政治的 民主主義에서 經濟的 民主主義까지 그들의 要求는 擴大되어 權威에 盲從하지 않는 社會的 분위기를 그들 스스로 形成하려 하였다.⁶⁵⁾

1965년부터 1967年 6月까지 學生運動의 중심지는 自由베르린大學이었다. 學生들은 大學의 改革을 要求하였다.

反權威主義를 主張하는 學生들은 大學을 全體社會의 一部分으로 간주하고 大學行政의 시스템의 改革에서 부터 始作하여 全體 教育體制, 政治體制, 警察, 教會 심지어 經濟의 組織에 이르기까지 改革을 要求하였다.⁶⁶⁾ 家庭, 教會, 國家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反權威意識의

지배적인 테마가 되었다. 존타이머教授는 이러한 反權威主義的 意識을 자연적으로 發生한 「自發性的 產物」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67)

그들 젊은이들은 文化論爭으로부터 야기되는 混亂, 都市에서 高度로 工業化된 生活로부터 오는 抑壓感이나 不安感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였다. 當時의 젊은 世代들은 戰爭을 체험한 세대보다 變動을 두려워하지 않고 變動에 대해서 戰爭세대보다 彈力性を 그리고 適應性を 가지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젊은이들은 變動을 추구하고, 變動을 환영하여 새로운 도전에 따를 努力을 增大하였다. 當時 獨逸젊은이들은 그들의 社會에 대하여 現在보다 더 많은 「參加權」을 바라면서 책임을 진 行動의 自由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社會로부터의 承認을 要求하였다. 技術과 電子計算機의 發達로 代表되는 機械化의 時代에 있어서 그들은 보다 깊은 自己認識과 保障된 主體性的 餘地를 社會로부터 기대하였다.

1967年 6月 2日에는 이란왕의 西베르린 訪問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警察과 충돌하여 한 學生이 희생되었다. 항의운동은 全獨逸의 모든 學院에 비화하여 學院의 改革要求는 體制改革 要求로 轉換하였다. 같은해 파리에서는 學生의 시위에서 出發한 「새로운 熱望」이 勞動者의 工場占拠, 스트라이크와 더불어 全國으로 拡散되어 10年安定을 구가하던 드골體制가 아래로부터의 에네르기 폭발로 흔들리게 되었다. 젊은이의 에네르기는 國家의 發展過程에 有益하게 活用하면 國家의 成長을 위한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다. 西獨은 當時 西獨社會의 젊은이의 要求를 變革을 위한 觸媒와 改善을 위한 자극제로 받아들임으로서 젊은층의 疎外問題를 正面으로 다룰 새로운 政權의 出現이 要求되었다.

다른 한편 1960年 西獨에는 一時的으로 保安的이고 民族主義的 색

채가 강한 右翼政党 「獨逸國家民主黨」(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NPD)이라고 하는 네오·나치스 대두의 위험이 존재하였었다. 그때 CDU/CSU와 SPD 뒤를 이어 西獨에서 제 3당으로 NPD가 진출할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西獨은 勿論 유럽 각국에 팽창하였다. 1966年 州議會에 16人, 1967年 23人, 1968年 12人의 NPD議員이 선출되어 1965年 총선거에 NPD의 연방회의진출의 豫想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68) NPD가 州議會에 급속하게 진출할 때 經濟의 기적을 누려왔던 西獨의 經濟가 전후 처음으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체험한 때였다. 貿易收支의 惡化, 실업자의 급증과 더불어 1967년에는 -0.3%의 經濟成長의 후퇴를 記錄하였다. NPD의 1967年 「基本原則」은 東方領土에 대한 請求權 主張이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現狀變更을 意味하였다.

그래도 1950年代에는 獨逸 再統一問題가 자주 論議되었다. 그러나 1961年 8月 베르린장벽의 충격은 1960年代 獨逸統一論은 空論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베트남戰爭으로 國際政治의 초점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地域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후 20여년이 지난후 獨逸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는 獨逸人의 要求는 높아졌으나 NPD가 밝힌 獨逸統一에 대한 強調는 너무나도 非現實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統一을 위한 희생의 댓가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西獨의 國民은 統一보다는 東獨과의 和解를 통한 現實的 政策을 扞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NPD의 에피소드는 西獨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西獨國民이 西獨政府와의 一體感 助成을 통하여 西獨의 政治文化의 결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信念을 갖도록 하였다. 69)

1968年 5月 프랑스에서의 학생소요도 參加를 위한 熱望의 表明이었으나 이 意欲을 體制內로 흡수되는 데 失敗하여 드골은 물러나야 했다. 이와 반대로 西獨의 브란트政權은 1968年, 1969年の 學生을 包含한 議會內의 反對勢力을 體制內에 신속하게 흡수하고 노후한 黨의 체질을 젊게 改善하여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變革을 向한 要求에 基礎한 內政의 改革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活氣있는 뒷받침을 기반으로 그의 外交政策을 자신있게 추진하였다. 다시말하면 社會民主黨은 議會外의 左派青年과 學生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黨體質을 젊은 에네르기로 충만되게 整備하였다. 社會民主黨의 青年組織(青年社會主義者, Jungsozialisten = JUSO)의 擴大는 1972年에 그 정점에 達하였다. 70) 1972年에 社會民主黨에는 155,000人 이상이 입당하였는데 그 중 JUSO에의 新入會員이 100,000人을 넘었다. 브란트의 社會民主黨의 政策을 支持하여 입당한 것이다. 그리고 1972年 聯邦議會選舉에서는 처음으로 選舉權을 얻은 젊은이의 표가 압도적으로 社會民主黨을 支持하였다.

이미 SPD와 自由民主黨(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의 小聯立政權은 內政의 改革에 착수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9年代 젊은 층은 經營, 學園, 地方自治體에의 勞動者, 學生 그리고 市民의 參加를 主張하였다. SPD는 이러한 要求를 制度化하는 作業을 實施하였다. 社會民主黨은 改革政黨이다. 資本主義社會의 維持의 條件은 體制內에서의 改革이라고 간주한다. 改革은 社會의 革命的 狀況을 不可能케 하기 때문이다. 社會民主黨은 市民의 決定에의 參加가 社會의 活性化와 國民統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 立法過程에 地方代表의 역할을 중시하고 地方自治體에서 選舉民의 意見을 중시하였

다. 個人的 孤立이나 소외는 無力感의 누적을 가져와 自己統制能力과 自己責任感을 상실케 하여 社會內的 對立關係를 격화시키고 社會의 無力化를 초래한다 하여 勞動者의 經營參加를 內容으로하는 産業民主主義를 지향함으로써 內實있는 經濟的 民主主義를 시도하였다. 71)

이러한 社會民主黨의 政策은 西獨의 市民으로 하여금 西獨에의 충성심을 깊게하는데 도움이 되고 獨逸問題에 대하여서는 現狀維持 政策을 可能케 하였다. 1972年 「BRD와 DDR의 특징」에 관한 調査는 「個人的인 自由」가 BRD에 85%, DDR에 6% 「國家의 個人生活에의 影響力은 BRD : DDR이 12% : 70%, 「政治에 市民의 參加」가 58% : 10%, 「經營參加」는 40% : 18% 그리고 企業家의 착취가 19% : 42% 72)로 西獨國民들의 西獨國家에 대한 신뢰와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당시 西獨에서는 「獨逸連邦共和國人」(Bundesrepublikaner)임을 자랑스럽게 強調하는 傾向이 지배적이었다. 브란트首相의 동방정책은 西獨國民의 일체감 조성을 촉진하였다. 獨逸問題에 대한 현상유지의 政策에 기초한 東獨의 正統性의 승인은 西獨에 대한 正統性의 受諾을 의미하여 73) 西獨政權의 安定性을 增大하였다.

1972年 선거쟁점은 獨逸問題에 집중되었다. 74) CDU/CSU는 西獨의 单独代表權대신 二國家論을 主張하는 SPD를 비난하였다. 브란트는 二國家의 現實이 발전하여 왔으며 西獨은 이를 認定해야한다고 하였다. 西獨은 國民的 問題만을 분리하여 解決할 수 없으며 東獨을 國家로서 認定하지 않은채 東歐와의 관계정상화는 非現實的이라 하였다. 브란트首相의 二國家라고 하는 現實認識은 그의 外相의 체험으로부터 얻은

決論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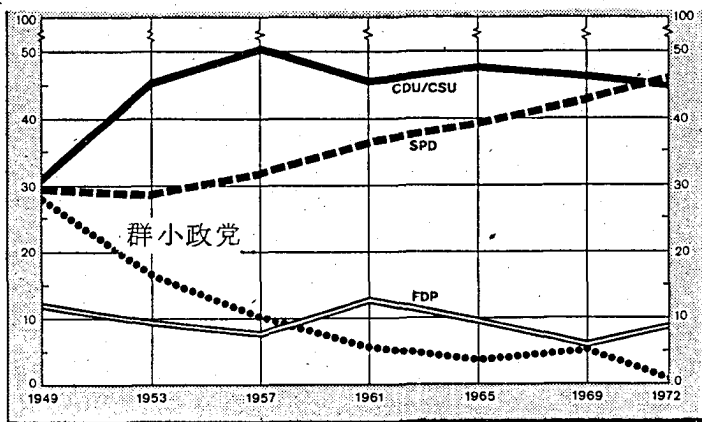
政黨과 政黨間的 競爭은 말할것도 없고 社會의 利益團體, 一般市民의 選舉에의 관심이나 參加는 獨逸 歷史上 그 尤를 찾아볼 수 없었다. 一般市民은 처음으로 그들의 政治的 意見을 組織하여 新聞에 실었다.

“Voters initiatives”가 활발하여 政治는 市民自身들의 問題로 把握되었다. 西獨의 民主政治에 대한 市民의 自信感과 有效感은 그들의 民主主義 政治體制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축적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1972年 연방의회선거에 西獨國民의 91.1%가 參加하여 독일선거사에서 최고의 記錄을 가져왔다.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國民的 合意를 가져왔고 SPD에 있어서는 野黨에 대한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 SPD를 支持한 선거민의 79%가 「기본조약」을 贊成하였다.⁷⁵⁾ 선거에서 CDU/CSU는 44.9%, SPD는 45.8%의 支持를 얻어 戰後 처음으로 第1黨으로 進出하였다. SPD의 東方政策이 大勝을 가져오던 그날 西獨은 뜨거운 분위기에 쌓여있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연방의회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



Andersen, Uwe, Wahl 76, Opladen 1976, p.77.

었다. 91.1%의 독일선거사상 최고의 투표율이 西獨民主主義 體制에 대한 正統性의 근거를 더욱 強力하게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투표하는 젊은 有權者 230만의 $\frac{2}{3}$ 가 SPD를 支持하고 $\frac{1}{3}$ 은 野黨을 支持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議會外의 反對勢力을 SPD의 支持勢力으로 형성하여 政治安定의 기반을 다진 SPD의 民主主義 能力을 과시한 것이다. 이는 곧 西獨의 優秀한 民主主義 能力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第2次大戰의 敗戰과 東西分裂이라고 하는 냉엄한 現實로부터 始作된 西獨國民의 政治的 成長을 의미하였다. 젊은 세대들은 舊世代的의 내셔널리즘 대신 合理的인 自由·民主意識이 강화되어 反合理的·反自由的 傾向을 갖는 네오·나치스대두의 위험을 상정한다는 것은 브란트政權以來 政治的, 社會的 環境으로부터 非現實的으로 되어 國民의 政治意識은 배런스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다이너믹한 本질은 西獨으로 하여금 새로운 自信心을 발산토록 하였다.

(5) 基本條約의 成立

東方과의 화해에 적극적인 브란트首相은 소련과의 條約締結을 끝내고 1970年11月에 폴란드와의 본격적인 交渉을 始作하여 12月7日 西獨과 폴란드사이의 條約을 締結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폴란드를 최초의 희생으로 하여 유럽 여러國民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온 제2차세계대전종결후 25年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것을 고려하여 그간 양국간의 새로운 세대가 자라 그들의 평화로운 장래를 保障하여야 된다고 고려하고 그들 사이에 평화로운 공동생활과 정상적인 우호의 關係 發展을 위한 영속적인 기초

를 닦을 것을 希望하여 구주의 平和와 安全을 확고히 하기 위해 努力하고 구주의 모든 國家의 불가침과 領土保全 및 主權을 現在 國境에서 존중하는 일이 平和의 基礎的 條件인 것을 자각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그 內容은 ① 現在의 國境認定 ② 國境不可侵 保障과 領土保全 ③ 經濟, 學術, 科學技術 및 文化의 協力擴大였다. 이로써 폴란드와 西獨의 국교는 정상화 되었다. 西獨政府는 「베르린協定」을 서둘렀다. 베르린問題는 四大國의 權한사항이다. 베르린協定은 獨逸과 소련조약, 獨逸과 폴란드條約의 비준조건이 되어 브란트政權의 안정여하에 關係되는 重大한 問題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베르린協定은 소련의 對西獨과의 和解意思의 의미와 西方側은 西獨의 東方外交에 대한 의미부여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베르린 問題로 소련의 交渉意思는 1969年 7月 10日 그로미코外相이 表明하고 西方三國은 四國의 大使水準에서의 交渉을 提案하였다.

1970年 8月까지 美國, 英國, 프랑스 및 소련의 대사가 會談을 거듭하였으나 交渉의 實質的인 진전은 모스크바조약 조인과 폴란드조약 조인 후였다. 소련은 베르린 交渉에서 베르린에 관한 四國의 權한과 責任을 認定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71年 9月 3日 이 協定이 締結되었다. ① 西베르린과 西獨간의 通行에 장애를 받지 않으며 ② 西베르린과 西獨간의 연결은 유지·발전되며 ③ 西베르린 市民은 人道, 家族, 宗教, 文化 또는 商業上의 이유로 또는 觀光客으로서 東獨을 訪問할 수 있다. 이 協定은 西베르린의 西獨과의 政治的 關係를 維持·發展하는 것을 認定하였다. 이 協定으로 베르린 정세는 일단 安定의 條件을 形成하였다.

베르린 協定으로 브란트首相에 있어서는 獨·蘇條約과 西獨·폴란드 條

約의 비준의 可能性이 높아졌고 東獨과의 交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本政府의 東方政策은 全 유럽關係를 東西協定에 의하여 안정시키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베르린協定을 계기로 하여 소련과 폴란드와의 條約이 成立함으로써 「東西獨間의 基本條約」⁷⁷⁾에 관한 交渉은 필연적이었다.

브란트政府는 이미 獨逸問題에 있어서 西獨政府의 基本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獨逸政策은 平和政策이다.
2. 獨逸政策은 착각하거나 감정적 이어서는 안되는 現實政策이어야 한다.
3. 獨逸政策은 유럽의 신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獨逸政策은 우방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東西獨基本條約을 締結하는 데에 있어서 브란트首相의 努力은 東方에만 그치지 않고 西歐 同盟諸國과의 結속을 다지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NATO의 여러나라들과의 단합, 西歐의 여러 民主國家들과의 統合의 強化로 東方外交의 직접적인 기반을 다지면서 基本條約締結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NATO 同盟國間的 結속과 西歐 自由主義 여러나라들과의 단합의 기초는 브란트로 하여금 信念에 찬 外交를 遂行할 수 있게 하였다.

1972年 12月 21日 東西獨基本條約이 締結되었다. 基本條約은 ① 一民族 二國家의 認定 ② 紛爭의 軍事的 解決포기와 現存國境認定 ③ 雙方의 獨立성과 平等認定 ④ 兩國民의 交流와 家族의 再結合을 촉진하고 經濟, 科學, 文化, 交通, 通信, 스포츠의 각분야에서 交流 ⑤ 常駐代表部를 各 國家의 首都에 設置할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 條約은

그 뒤 양 獨逸關係의 發展에 도움이 되는 基本原則이 되었다.

이로서 두 獨逸國家는 그들의 民族問題에 대하여 大國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對話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西獨은 西歐에 더 가까워 졌고 NATO의 적극적인 同盟國이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브란트首相의 獨逸政策은 西獨의 西歐政策에도 기여를 하였다. 獨逸이 처한 國內外的 條件下에서 브란트首相이 추진한 동방정책은 東獨과의 再統一 問題라는 채워지지 않은 國家的 興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國家的 與望에 따라 國力을 쓰지 않고 유럽에서 獨逸의 國家的 에베르기의 분출을 현명하게 方向지어 西獨의 國際的 힘과 行動의 자유영역을 불가피하게 增大시켰다.

獨逸人은 그들의 歷史的 位置를 잘 알고 있다.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한 獨逸의 비중은 늘 유럽인접 國家의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었고 유럽大陸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概念에 불행한 기여를 하였다. 여하튼 西獨의 東方政策은 西獨의 政治的 地位를 經濟的 地位까지 높여 오늘날 西獨은 民主主義 진영에서 보기드문 政治的, 經濟的 安定勢力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註

1. Hallstein Doctrine (1956 ~ 1967)은 1956년 6월 28일 Brentance 西独外相의 連邦議會에서 행한 外交演說에서 공식적으로 表明되었다. 그 내용은 1, 이미 東独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는 東歐諸國과 外交關係를 갖지 않는다. 2, 이미 西独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는 제 3국이 東独과 國交를 개시하려고 할때는 그것을 저지할 것이며 그래도 외교관계를 설정할 때는 西独이 第3國과의 外交關係를 단절한다는 것이다. Text, in : Archiv der Gegenwart (ed.),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 WVSD), Bd. I., Bonn 1967, P.73-74.
2. 狀況의 定義 (definition of Situation)는 能力의 評價, 國內의 政治的 反應 또는 國家的 役割의 最少公約數를 包含한다 (Holsti, K.J.,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1967, P.187.).
3. 제 2차 세계대전후 國際秩序는 1.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한 「東西 冷戰構造」(1945-1961), 2. 「東西 Détente 構造」(1962-1979)로 특징지을 수 있다. Détente는 冷戰時代의 緊張에 대하여 緊張의 緩和를 意味한다. 즉 冷戰의 의미와는 달리 데탕트는 東西 紛爭의 변형된 형태로서 전쟁의 勃發을 저지하는 狀況에 도달하려는 東西間의 努力의 의미가 包含되어 있어, 交渉의 過程과 관계된다. 이는 또한 Conflict의 영역이나 형태의 제한을 의미하기도 한다. Status quo의 존중에 있어서 非軍事的으로 서로의 紛爭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相反된 目標과 利益調整에 最少公約數를 찾아 노력하는 것이다 : Haftendorn, Helga, "Versuch

- einer Theorie der Entspannung", in: Sicherheitspolitik heute, Heft 2/1975, P.223.
4. Spanier, John W.,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London 1971, P.55.
 5. Berber, F.(ed.), Völkerrechtliche Verträge, München 1973, PP. 289-291.
 6. Text, in: Ibid., PP.292-297.
 7. 「유럽의 심장부에는 不自然스런 線이 놓여 있어 東西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통으로 노력할 틀을 제공할 때 獨逸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유럽건설의 의미에서 獨逸統一을 달성하기 위해 東西間의 環境을 개선하여야 된다」는 내용이였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ct.8.1966; Alexander, James, "Deadlock in Vietnam", in: Progressive, Sept. 1962, PP.20-24; Lewis, J.W., The United States in Vietnam, New York 1967, Cap.V.
 8. NATO Informationsabteilung, NATO, Tatsachen und Dokumente, Brüssel 1976, P.377.
 9. 미국 데탕트정책의 設計士는 Kissinger 였다. 그의 긴장완화정책은 소련을 向한 「大國의 外交」로서 國際的인 balance of power의 條件에서 出発하였다. 그에 있어서 世界政治의 安定은 平和를 向한 努力에 있는 것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認定된 正統性的의 유지를 향한 努力에 있다. 만일 한 세력이 認定된 國際秩序와 正統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革命的」이다. Kissinger의 데탕트개념은 Metternich의 Power Politics에 있어서 고전적인

balance of power 政策의 부활이었다. 미국의 世界戰略의 측면에서 데탕트의 관심을 소련과의 軍事力과 世界에서 소련의 활동에 두고 소련과의 협조로 세계의 긴장을 감소하며 안정된 상태에서 현 안문제를 해결, 경제관계개선 그리고 군축문제교섭을 그 內容으로 하였다: Kissinger, Henry, A World Restored 1812-22, New York 1964.

10. Woslenskij, Michael S., "Das Prinzip der friedlichen Koexistenz", in : Heftendorn, Helga(ed.), Theori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Hamburg 1975, P.183.
11.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 Cf. Volle, Hermann (ed.), KSZE, Bonn 1976, PP.1-3.
12. 1966년 7월 WP (Warsaw Pact) 정치자문위원회는 1. 獨立, 主權, 平等權, 內政不干涉原則위에서 善隣關係와 貿易, 經濟, 科學, 技術, 文化의 분야에서 접촉과 협력의 擴大, 2. NATO와 WP의 同時解消, 3. 東西獨의 兵力감축, 4. 西獨의 核兵器에 接近可能性 배제, 5. 領土의 不可侵, 6. 東西獨의 存在事實認定을 제안하였다. 이는 西方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宣傳的인 제안이었다: Ibid., PP.3-8.
13. Text, in : Völkerrechtliche Verträge, PP.372-373.
14. 西獨은 大口徑 파이프라인 鋼管 120 만 t 제공, 소련은 20 년간에 천연가스 520 억 m^3 을 供給.
15. 西獨은 240 만 t의 大口徑파이프라인 제공, 소련은 20 년간 680 억 m^3 천연가스 西獨에 供給.
16. Stent, Angela, "The USSR and Germany", in : Problems of

- Communism, Sept.-Oct. 1981, PP.13-15.
17. Stammen, Theo (ed.), DDR, München 1974. PP.23-32.
 18.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4, Bonn 1974, P.370;
Leptin, G., Die deutsche Wirtschaft nach 1945 - ein
Ost-West Vergleich, Opladen 1970; Mellor, Roy E.H.,
The Two Germanies, New York 1978, PP.368-389.
 19. Stammen, Theo , OP. cit., P.46.
 20. 東獨은 수출의 3/4을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經濟相互援助會議) 諸國家에 그리고 그중 半을 소련
에 수출한다. 수출공업제품은 工作機械, 化學製品, 輕工業製品, 유리,
陶器, 電子工業등 이다.
 21. Honecker는 西獨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國際社會에서 東獨을 國家
로서 승인을 얻고 UN에 西獨과 대등한 자격으로 가맹하여 東獨의
對外的 地位를 굳혔다.
 22. Jaspers, Karl,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München
1960; Eschenburg, Theoder, Zweimal Deutschland, Die Zeit
30. Jan. 1959.
 23. Noack, Paul, Deutsche Außenpolitik seit 1945, Stuttgart
1972, PP.10-14 ; Schwarz, Haus Peter, " Das außenpoliti-
sche Konzept Konrad Adenauers", in : Maier, Hans, Konrad
Adenauer, München 1975, PP.97-156.
 24. 1949年 10月 21日 아테나워는 그의 정책 연설에서 西獨의 서
방측에의 소속을 강조하고 오데르 - 나이제 국경 (Oder-NeiBe-

Grenze)을 거부하였다.

25. 西独의 헌법전문은 다음과 같이 독일통일에 대해서 成文化하고 있다: “전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으로 독일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도록 요청되어 있다.”
26. Tilford, Roger(ed.), The Ostpolitik and Political Change in Germany, S. Wales 1977. P.1.
27. Sowjetischer Grundriß eines Friedensvertrags mit Deutschland, 10 März 1952, in: WVSD, PP.41-42.
28. “Wenn Deutschland wirklich neutralisiert wäre, Wenn dann die Integration Europas unmöglich wäre, Würde Amerika Europa verlassen und ... auf diesem Wege des kalten Krieges seine Herrschaft über ganz Europa zu erstrecken”, Schubert, Klaus(ed.), Sicherheits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ation 1945-1977, Teil I, Köln 1978, PP.172-175.
29. Spanier, John W.,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London 1971, P.66.
30. Monnet, Jean, Memoirs, London PP.27-274.
31. 유럽통합의 근거에 흐르는 사상은 수세기동안 세계를 지배하여 오던 유럽이 그들 스스로의 戰爭에 의하여 破壞되고 과거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에는 미국과 소련 二大強國이 출현하게되자, 유럽인은 危機感을 느껴. 前後 新生의 유럽은 종래의 民族國家體制의 부활이 아닌 유럽통합을 통하여 유럽을 政治·經濟적으로 부흥하고 유럽에서 戰爭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內容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 독일의 팽시즘에 시달린 유럽인은 독일의 위협을 유럽통합에 흡수하여 長期的인 平和對策을 마련코저 하였다. 유럽통합을 추진한 대표들은 다음과 같다 : Jean Monnet, Robert Schuman, Paul Henri Spaak, Alcide de Gasperi, Konrad Adenauer and Winston Churchill.
32. Uropa Union Verlag, Europa Verträge und Gesetze, Bonn 1975, PP.407-413.
33. Cf. "Das Dilemma der Bonner Politik", in : Cornides, Wilhelm, Die Internationale Politik. 1956/57, PP.389-392.
34. Müller-Armack, A.(ed.), Wirtschafts-und Finanzpolitik im Zeich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1967.
35. "Die Bundesrepublik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36. Low, Konrad, Rechtstaat und Demokratischer Sozialstaat, München 1974.
37. Pfaff, Martin(ed.), Sozialpolitik in Wandel, Bonn 1978, PP.9-22 ; Bartholomäi, Reinhart(ed.), Sozialpolitik nach 1945, Köln 1977, PP.3-16.
38. CDU, Politik in Zahlen, 1972, P.16 ; 生活水準의 向上을 보면 T.V. 소유자율이 1964년에 63%에서 1971년에 95%, 세탁기는 60%에서 90%로, 승용차는 30%에서 64%로 증가하였다 : Ibid., P.34.
39.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4, P.424.

40. 1945년 이후 Oder-Neiße 以東으로부터 1200 만 難民중 800 만 이 西獨에 정착하였다.
41. 不況이 지속되면 실업자의 불만은 Oder-Neiße 以東의 토지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 날 수도 있다. 1966년 경제성장율은 2.8%, 1967년에는 -0.2%의 不況을 기록하였다: Ibid., P.322.
42. 1945년 10월 7일 Schumacher의 SPD 路線, in: SPD, Programmatische Dokumen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onn 1973, PP. 246-280.
43. Ollenhauer: "Der letzte Deutsche muß überzeugt sein, daß, Wenn die Bundesrepublik sich integriert, es die Folge unmöglichkeit einer Verständigung ist."
44. Körner, Klaus, "Die Wiedervereinigungspolitik", in: Schwarz, H.P.(ed.), Handbuch der deutschen Außenpolitik, München 1975, P.592; End, Heinrich, Zweimal deutsche Außenpolitik, Köln 1973, PP.5-56.
45. Vorstand der SPD (ed.), Deutschlandplan der SPD-Kommentare, Argumente, Begründungen-, Bonn, April 1959.
46. Der Deutschlandplan, Ibid., P.5.
47. Ibid; P.6; Wilker, Lothar, Die Sicherheitspolitik der SPD 1956-1966, Bonn-Bad Godesberg 1977, PP.51-52.
48. Deutschlandplan 작성은 Herbert Wehner, Fritz Erler, Ernst-Wilhelm Meyer, Ernst Paul, Kurt Mattick, Gustav Heinemann 그리고 Helmut Schmidt 가 말았다.

49. Text, in : SPD, Programmatische Dokumen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onn-Bad Godesberg 1973, PP.349-371.
50. Wilker, Lothar, Ibid., P.133.
51. Contents, in : WVSD, PP.115-116.
52. Text, in : Ibid., PP.117-125.
53. Noten der Sowjetregierung an die BRD, an die DDR und an die drei Westmächte Schlagen Einberufung einer Friedenskonferenz vor und geben Entwurf eines Friedensvertrages mit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bekannt, in : Ibid., PP.138-154.
54. Wilker, Lothar, OP. cit. P.133.
55. Ibid., P.135.
56. Rede des Abgeordneten Herbert Wehner in der Debatte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30. Juni 1960, in : SBDD, PP.218-221.
57. "the Federal Republic Deutschland was an economic giant but a political dwarf".
58. Osterroth, Franz, Chronik der SPD, Vol. III, Bonn 1978, PP.365-366.
59. WVSD, PP.267-268.
60. 런던 Foreign Affairs Club 에서 1967년 4월 12일 브란트의 강연, in : WVSD, P.269.
61. 大聯立政權이 成立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西獨과 루마니아와의 外交關係가 樹立되었다. 이는 大聯立의 東方外交의 최초의

- 外交成果였다. 그러나 이는 前政權의 外交的 努力的 結實이었다.
62. SBDD, PP.307-310.
63. 全独逸人을 称함.
64. Berber, Friedrich(ed.), Völkerrechtliche Verträge, München 1973, PP.376-377.
65. Sontheimer, Kurt, Das Elend unserer Intellektuellen, Hamburg 1976, PP.33-36.
66. Ibid., P.34.
67. 1969년에 UN은 Student Power의 世界的 問題狀況에 대한 報告書를 발표하였다. 당시 세계의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는 Hollstein, Walter, Die Gegen Gesellschaft, Bonn 1980 을 参照.
68. Stammen, Theo (ed.), Programm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München 1975, P.281.
69. 이러한 견해는 Besson 교수, Dahrendorf 교수에 의하여 처음 표명되어 Schmidt 現首相等 政治家들의 공명을 얻었다; Besson, W., "The Federal Republics national interest", in: Außenpolitik, no.2, 1970, PP.123-135; Schmidt, Helmut, "Bisher nur eine Schönwetterdemokratie",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5. August 1969, P.10.
70. 1969년 SPD 당원수는 778,945명 이었으나 1972년에는 954,394명으로 擴大 되었다.
71. Miller, Susame, Die SPD Vor und nach Godesberg, Bonn 1975, PP.152-155.

72.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ur Lage der Nation 1972, P.100.
73. Paterson, W. E., "The Ostpolitik and Regime Stability in West Germany", in: Tilford, Rogen(ed.), OP. cit., P.37.
74. Niclauß, Karlbeinz, Kontroverse Deutschlandpolitik, Frankfurt a. M. 1977, PP.57-70.
75. Paterson, W. E., OP.Cit., P.38.
76. Berber, Friedrich, OP. Cit., PP.376-377.
77. Ibid., PP.397-495.

参 考 文 献

- Archiv der Gegenwart (ed.),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Bonn 1967.
- Berber, Friedrich (ed.), Volkerrechtliche Verträge, München 1973.
- Brandt, Willy, Über den Tag hinaus, Hamburg 1974.
- Bundesminister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Zur Lage der Nation 1972, 1974.
- Cornides, Wilhelm, Die Internationale Politik, 1956/57, 1958/60, 1961/62, 1964/65.
- End, Heinrich, Zweimal deutsche Außenpolitik, Köln 1973.
- Heftendorn, Helga (ed.), Theori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Hamburg 1975.
- Hollstein, Walter, Die Gegen Gesellschaft, Bonn 1980.
- Holsti, K.J.,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1967.
- Kissinger, Henry, A World Restored 1812-22, New York 1964.
- Kolko, Gabriel, Hintergründe der US-Außenpolitik, Frankfurt am Main 1969.
- Leptin, G., Die deutsche Wirtschaft nach 1945-ein Ost-West Vergleich, Opladen 1970.
- Lewis, J.W., The United States in Vietnam, New York 1967.
- Maier, Hans, Konrad Adenauer, München 1975.
- Meller, Roy E.H., The Two Germanies, New York 1978.
- Miller, Susane, Die SPD vorund nach Godesberg, Bonn 1975.

Monnet, Jean, Memoirs, London 1978.

NATO Informationsabteilung, NATO , Tatsachen und Dokuments,
Brüssel 1976.

Niclauß, Karbeinz, Kontroverse Deutschlandpolitik, Frankfurt am
Main 1977.

Niess, Frank, Amerikanische Außenpolitik, Düsseldorf 1977.

Noack, Paul, Deutsche Außenpolitik seit 1945, Stuttgart 1972.

Osterroth, Franz, Chronik der SPD, Vol. III, Bonn 1978.

Schubert, Klaus (ed.), Sicherheits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ation 1945-1977, Köln 1978.

Schwarz, H.P. (ed.), Handbuch der deutschen Außenpolitik,
München 1975.

Spanier, John W.,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London 1971.

SPD, Programmatische Dokumen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Bonn 1973.

Stammen, Theo (ed.), DDR, München 1974.

Stammen, Theo (ed.), Programm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München 1975.

Stent, Angela, "The USSR and Germany", in: Problems of Communism,
Sept. - Oct. 1981, pp.1-24.

Tileford, Roger, The Ostpolitik and Political Change in Germany,
England 1975.

Europa Union Verlag, Europa Verträge und Gesetz, Bonn 1975.

Völle, Hermann (ed.), KSZE, Bonn 1975.

Wilker, Lothar, Die Sicherheitspolitik der SPD 1956-1966, Bonn
1977.

